

## 코로나19 관련 해외시장 주간 동향 보고

(2021.3.23 기준)

### <중국>

- 주한중국대사관, 3.15일부터 중국산 백신 접종자 대상 비자발급 편의 제공
  - 취업Z, 상무M, 방문F 등 비자로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과 동반가족은 중국 각 성(省) 외사관공실 또는 상무청 등 기관에서 발급한 초청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코로나19 발생 전 비자 신청 서류만 준비
    - \* 코로나19 핵산 검사 및 혈청 항체검사 음성증명서 요구 사항은 변경 없으며, 중국 입국 후 격리 관련 규정 또한 변경 없음
-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각국 방역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비자발급, 항공편, 입국지수 규제책 실시 예정(3.21)
  - \* 백신 접종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와 격리 면제 없음.
  - \* 내국인 면역수준이 안전한 수준에 도달한 다음 현행 방역조치 조정 예정
  - \* 백신 여권의 국제적 진행 상황 주목 중.
- 정부, 3.16일부 자국 내 여행 시 코로나19 핵산 검사 증명 불필요 공지
-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중국산 백신을 구입해 도쿄 올림픽 및 베이징 동계 올림픽 참가자에게 제공 계획 발표(3.16)
- 문화체육부, 「관광지 재개방 지침」 조정 발표(3.18)
  - 각 지역별 관광지 재개는 통일화하지 않고 현지 방역 상황에 따라 진행
  - 관광객 수용능력 관리 강화. 관광객 제한 수량을 과학적으로 설정하여 입장권 예약제 엄격 실행
  - 시간별 관리 방법 실행으로 순간적 혼잡 방지
- 중국 내 백신 접종 7495.6만회 분량 완료(3.20 기준)
  - \* 2022년 초 백신 접종률 70%~80% 달성하여 집단 면역 기대

### <대만 · 홍콩>

- (대만) 4.1일부 대만-팔라우 트래블 버블 개시 정식 선언(3.17)
  - 트래블 버블 체결에 대해 대만 소비자는 호의적이나 상품가격이 너무 비싸 실제 참여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연합신문망, 3.17)
  - 교통부 장관, 언론 매체 인터뷰 중 차기 대상국가 및 현재 협의 진행국가로 한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지속 언급(Mirro Media, 3.18)

**<대만-팔라우 트래블 버블 추진동향>**

○ 참가자격

- 최근 6개월 내 출입경 기록이 없는 자
- 최근 2개월 내 자가격리, 자가격역, 능동감시대상 이력이 없는 자
- 최근 3개월 내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없는 자
- 출발 전 공항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

○ 추진계획

- 횟 수 : 매주 2회(목, 금) 선행 후 확대 여부 추후 재검토 예정
- 항 공 편 : 중화항공(737-800, 158석)
- 인원제한 : 대만발 주 최대 220명 이내 (편당 110명)
- 상품구성 : 총 2종 (3박4일, 4박5일)
- 예상가격 : NT \$7~9만 (한화 280~360만원) \* 코로나19 이전 상품가의 약 2배
- 개시일자 : 4.1(목)
- 판매업체 : 미정
- \* 중화항공과 중화민국 여행산업동업공회전국연합회 간 협의를 거쳐 기존 팔라우 상품 취급 여행사 위주로 5개사 선정 예정

○ 자가격리

- (팔라우 도착 시) 없음
- (대만 귀국 후) 능동감시 14일 / 강화된 능동감시 5일 + 능동감시 9일
- \* 무증상자 외출 가능, 팔라우 비 동행자 동거 시 방역지침 준수 필요(공동식사 불가, 단독 욕실이 있는 1인 1실로 주거 공간 분리, 사회적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이용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방문 불가, 접촉자 명단 작성 필요 등)

○ 트래블 버블 5대 원칙

- ① 단체 일정에 한함(개별 자유일정 불허)
- ② 현지인과 관광객 간 접촉 가능성 최소화한 일정·행선지 사전 안배
- ③ 모든 행선지 전용차량 이용 및 지정장소 승하차, 차량 매일 소독 실시
- ④ 팔라우 방역당국 지정 방역 안전 인증 호텔에 투숙
- ⑤ 식당 이용 시 전용 식사 구역 안배를 통한 동선 분리 및 좌석안배 시 사회적 거리 유지

- (대만) 3.18일부 중국 본토와의 비즈니스 교류 재개(14일 자가격리, 7일 능동감시 필요), 향후 친족 방문 허용으로 확대 예정
- (대만) 3.22일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11.7만 도스) 의료진 6만 명 대상 접종 개시
- (홍콩) 3.21일 기준 총 354,400명(홍콩인의 5%) 백신접종 완료(시노백 233,700명, 화이자 120,700명)
- (홍콩) 3.16일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 30세 이상 홍콩거주민으로 확대, 총 550만 명(홍콩인의 80%) 대상 접종 시행

- (홍콩)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3.31일까지 2주 연장
  - 공공모임 4인까지 허용, 식당 내 취식 저녁 10시까지 제한,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등

### <일본>

- 수도권 1도 3현(도쿄도, 카나가와현, 치바현, 사이타마현), 긴급사태선언 해제(3.21)
  - 음식점 영업시간은 긴급사태기간 중 20시까지에서 21시까지로(3.22~3.31) 운영 제한, 4월 이후 단계적 완화 예정
- 'Go To 트래블' 긴급사태선언 해제 이후에도 전국 재개 어렵다 판단하여 중단 지속 예정(3.22)
- 도쿄올림픽 해외 거주 외국인 자원봉사자 약 500명 특별 입국 검토(3.22)
- 국토교통성, 해외 입국자 수 1일 2,000명 제한 방침
  - 코로나19 및 변이 바이러스 대응 및 검역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당분간 유지 방침
  - 국제선 운항 항공사 대상 탑승객 수를 1회 당 100명 이내로 제한 요청
  - 국내선 운항 항공사 대상 탑승객 수를 1주일 당 3,400명 이내로 제한 요청
- 일본 전국 백신 접종 횟수 57만 8,835회(3.19 기준)
  - 1차 접종자 수 55만 3,454명, 2차 접종 완료자 25,381명
  - 4.12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자(3,600만명) 대상 접종 개시 예정
  - 6월까지 백신 약 1억회 분 확보 전망

### <동남아중동>

- (싱가포르) 대만(4월), 호주(7월) 트래블 버블 추진 논의 중
- (베트남) 총리, 백신여권 활용 국제선 여객기 운항재개 검토 지시. 국적항공사 Vietnam Airlines, 백신 여권 적용의 시범 사례 준비
- (UAE) 에미레이트 항공·에티하드 항공, IATA 트래블 패스 도입 및 시범 운영 중
- (태국) 4.1일부 해외 입국자 대상 자가 격리 단계적 완화 발표(3.19)
  - 백신 접종 증명서 및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지참 시 7일 격리 및 코로나19 검사 1회 실시. 동 서류 미 지참 입국자는 10일간 격리 및 코로나19 검사 2회 실시
  - \* 변이 바이러스 발생지역 입국자는 기존대로 14일 격리
- (태국) 4.1일부터 '호텔지역(구내)격리' 외국인 관광객 유치 허용
  - 보건부·관광체육부·교통부, 4월부터 치앙마이, 푸켓, 끄라비, 쑤랏타니, 촌부리 외국인 입국자 대상 호텔지역격리(Area Hotel Quarantine) 허용
-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경제상공회의소(아타메켄연합), 해외관광 상품 단가에 코로나19 PCR 검사 비용 포함 가능성 검토 중
  - 현재 해외에서 입국한 국민 1인당 PCR 검사 비용 18,000텡게(약 43달러)

- (필리핀) 정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4.21일까지 외국인 입국 금지령 발표
- (터키) 4.15일부 외국인 대상 숙박업소 체크인 시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 의무 제출 면제 시행
- (인도) 백신 접종 시작으로 전국 확진자수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뉴델리, 뭄바이 등 대도시 거주 빈민들의 백신에 대한 정보 부재로 해당지역 내 확진자수 오히려 급증
- (인니) 소규모 사회적활동제한(PPKM) 4.5일까지 연장적용 및 지역 확대 시행
- (몽골)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 200명 초과, 비상대책위원회, 통금 등 조치 관련 회의 실시 예정(3.22)
- (말련) 2주간 일평균 확진자 1천명대로 감소(3.22)

### <구미대양주>

- (호주) 정부, 뉴질랜드에 한하여 해외여행 규제 해제
  - 뉴질랜드 총리는 쌍방향 트래블 버블을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국경 전면 개방이 아닌 지역 대 지역(state-by-state)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표명
  - \* 4.6일 트래블 버블 시작 날짜 발표 예정
- (미국) 델타항공, 4.2일부 뉴욕발 밀라노·로마행 자가격리 면제 항공 프로그램 실시
  - 출발 72시간 이내 PCR 테스트 및 JFK 공항 신속진단 실시, 밀라노와 로마 도착 후 시행하는 검사 3회 모두 음성 결과 시 자가격리 면제 가능
  - \* 현재 이탈리아는 입국자 대상 14일 자가격리 의무 시행 중
- (러시아) 아이슬란드, 러시아 포함 모든 유럽국가의 백신 접종 여행객 대상 국경 개방
  - 아이슬란드는 유럽 국가 중 코로나19 관련 가장 안전한 국가 1위를 달성하였으며, 유럽연합에서 승인한 백신을 접종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경을 개방한다고 발표
- (러시아) 그리스, 5.14일부 러시아 관광객 대상 쉥겐 협약 비자 발급 발표
  -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나 항체 존재 증명서, 러시아 백신을 포함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한 러시아 관광객은 쉥겐 협약 비자를 발급하여 아무런 제약 없이 그리스 방문 가능
- (독일) 코로나19 전면 봉쇄령 4.18일까지 연장. 단, 3.8일부터 일부 완화
  - \* 재택근무 의무 법령(코로나 노동보호법) 당초 3.15일에서 4.30일까지 연장
  - \* 필수 상점, 약국, 미용실 영업 외 서점, 원예점 영업 및 사적모임 2가구 5명까지 접촉가능
  - \* 불필요한 여행경고, 3.1일부터 입국시 코로나19 방역조치 관련 문자(SMS) 서비스 및 코로나 위험 국가 입국시 14일 자가격리기간 유지
- (영국) 최근 혈전 생성 위험 관련 논란으로 유럽 상당 국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으나, 영국은 여전히 높은 신뢰도(77%)를 보임(YouGov, 3.21)
  - \* '안전하지 않다'는 국가 응답자 비율 : 프랑스(61%), 독일(55%), 스페인(52%) 등

- (프랑스) 3.20일 0시부터 한 달 간, 파리를 포함한 16개 지역\*에 3차 이동제한 조치 시행, 전국의 통금 시작시간은 19시로 1시간 연기
  - \* 일드프랑스(파리 등 수도권 지역 일부, 8개), 오드프랑스(5개 지역), 알프-마리팀 주, 센스-마리팀 주, 퀴르
- (프랑스) 4.1일부터 최소 4개월간 파리 대형 축구 경기장(스타드 드 프랑스) 실내 사무실 및 편의시설 등을 개조하여 백신 접종센터로 활용 예정
  - \* 일일 최소 2천 명, 일주일에 최소 1만 명 이상 백신접종 목표

※ [참고]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현황 (외교부, 3.23 10시)

□ 총 176개 국가·지역

구분	국가·지역수
입국금지	52개국 *중국 : (공통)기존 비자,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잠정 중단 (30개 성·시)각 지역 별도 방침 있음
격리조치	10개국
검역강화 및 권고	114개국(전주대비 +1)

\* 입국제한 해제 : 11개 국가·지역(전주대비 -1)

※ 참고자료

1. 국가별 관광재개 현황
2. 국가별 항공/페리 동향
3. 각국의 한국 여행 금지·자제 관련 조치현황
4. 한국의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현황
5. 국가별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끝.

**참고1**

**국가별 관광재개 현황 [3.23 기준]**

○ 국가별 현황

국가	내 용	
중국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이징(4.17) · 상하이(3.30) · 산둥(3.31) · 산시(陝西)(3.16) · 장쑤(3.23) · 광둥(5.15) 등 지역 성·시 내 여행에 한해 영업 재개</li> <li>○ 여행사 영업 재개 관련 문화여유부 및 지역 문화여유청 등 관련 부서 통지 후 가능</li> <li>○ 중국대륙 주민의 마카오 입국 시 검역단계 하향조정 자기격리 면제(7.14)</li> <li>○ 감염병 관리 우수 지역의 성(省)간 단체상품 판매 및 운영 허가(7.14)</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콩 비거주자(non-resident) 입국 금지(~ '21.9.30) ※ 단, 중국·마카오·대만에서 14일 거주 후 입국시 비거주자 입국가능</li> <li>○ 홍콩-싱가포르 트래블버블 합의(2020.10.15) * 시설격리·자기격리 해제. 여행목적이나 일정에 제한 없음</li> <li>○ 코로나 재확산으로 홍콩-싱가포르 트래블버블 잠정 중단(2020.11.21) ※ 트래블 버블 재개 일정 미정</li> </ul>
대만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역관광) 5.27-8.3, 관광산업 종사자(5만명) 방역수칙 준수 현장답사</li> <li>○ (안심관광) 7.1-10.31, 일반국민 대상 국내관광 바우처 지급</li> <li>○ 관광국, 국제관광 관련 예산(한화 400억원) 안심관광 지원금으로 추가 투입(8.28)</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관광객 유치) 국경통제 완화, 환승금지 해제 등</li> </ul>
일본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관광활성화 「Go To 캠페인」 1조 6,794억엔 추경 예산 편성( '20.4.7)</li> <li>○ 관광청, 「Go to 트래블」 캠페인 7월 22일부터 개시 * 제외되었던 도쿄, 정식대상으로 추가 ( '20.10.1~)</li> <li>○ 오사카부, 삿포로시 등 코로나19 급증지역 「Go To 트래블」 캠페인 일시정지 기간 연장 ( '20.12.14)</li> <li>○ 「Go To 트래블」 캠페인 전국 일시정지 실시( '20.12.28~ '21.1.11) * 도쿄도( '20.12.18~), 나고야시(20.12.16~), 히로시마(20.12.24~)은 선행하여 정지 실시 * 기구매건 취소 수수료 면제, 사업자 대상 여행 대금 50% 보상 방침</li> <li>○ 「Go To 이벤트」, 「Go To 상점가」 캠페인 일시중지 (20.12.28~ '21.1.11)</li> <li>○ 비즈니스 트랙 포함 외국인 신규 입국 중단 조치 3.21일까지 연장( '21.2.2-3.21)</li> <li>○ 긴급사태선언 발령에 따른 「Go To 트래블」 중단기간 연장( '21.1.12~3.21)</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관광 1억 명 목표 수립('20.5.18)</li> <li>○ 내각, 224억 바트(7.2억 달러) 규모 국내관광산업 부양책 승인('20.6.17) - 주요내용 : △국내관광 지원(180억 바트, 5.8억 달러) △의료진 및 보건 봉사자 휴일여행 지원(24억 바트, 0.8억 달러) △국제항공운임 지원(20억 바트, 0.6억달러)</li> <li>○ 내각, 「We travel together」, 「Moral Support」 계획 발표('20.7.1)</li> <li>○ 국내관광 진흥 프로그램 「We Travel Together」 시행 첫날 190만 명의 국민이 온라인 등록('20.7.17)</li> <li>○ 국내관광 진흥 프로그램 「We Travel Together」 으로 호텔 객실 예약 수 360만개 도달('20.7.21)</li> <li>○ 태국관광청 5개 지역 안전 여행루트 공개</li> <li>○ 국내관광 진흥책 「We Travel Together」의 혜택 확대 방안 승인('20.8.27)</li> <li>○ 관광청, 태국 거주 외국인(18만 명) 여행 장려를 위해 1인당 500바트 지원('20.9~11월) 준비</li> <li>○ 관광청, 타이항공-태국호텔협회-태국 여행사협회와 공동으로 국내여행 패키지 마련 및 외국인 대상 관광 보조금 제공 지원 계획('20.10.30)</li> <li>○ 관광청, We Travel Together 캠페인 2021년 송กรานต์까지 연장 확대 예정</li> </ul>
태국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 목적의 한국인, 비자 없이 태국 입국 가능('20.12.21) - 지난 3.11이후 중단되었던 무시증 제도를 여행목적의 경우 한국 포함 56개국 대상으로 재개. 14일간 격리조치, 입국허가서(CoE),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보험 등의 자필요건은 유지.</li> <li>○ 숙박시설을 갖춘 골프리조트를 격리시설로 지정(6곳), 골프시설을 이용하면서 격리하는 골프장 격리 투어 제도 도입</li> <li>○ 푸켓, 10월부터 외국인 관광 재개 「Phuket First October*」 계획 추진('21.3.8) - Phuket First October : 4월부터 입국 관광객에 대해 3일 객실격리 후 나머지 기간 동안 호텔 내에서 격리하도록 하며 푸켓 주민의 70%가 백신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관광객의 격리 기간을 축소하고 백신접종 관광객에 대해서는 격리절차를 면제토록 함</li> <li>○ 정부, 3.8(월) 외국인 관광객들의 요트격리* 허용 - 요트격리 :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14일 의무격리 기간 동안 요트(또는 푸켓 소형 크루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 관광객들은 위치 추적 및 체온과 혈압(심박수)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 손목밴드를 착용</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 목적의 한국인, 비자 없이 태국 입국 가능('20.12.21) - 지난 3.11이후 중단되었던 무시증 제도를 여행목적의 경우 한국 포함 56개국 대상으로 재개. 14일간 격리조치, 입국허가서(CoE),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보험 등의 자필요건은 유지.</li> <li>○ 숙박시설을 갖춘 골프리조트를 격리시설로 지정(6곳), 골프시설을 이용하면서 격리하는 골프장 격리 투어 제도 도입</li> <li>○ 푸켓, 10월부터 외국인 관광 재개 「Phuket First October*」 계획 추진('21.3.8) - Phuket First October : 4월부터 입국 관광객에 대해 3일 객실격리 후 나머지 기간 동안 호텔 내에서 격리하도록 하며 푸켓 주민의 70%가 백신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관광객의 격리 기간을 축소하고 백신접종 관광객에 대해서는 격리절차를 면제토록 함</li> <li>○ 정부, 3.8(월) 외국인 관광객들의 요트격리* 허용 - 요트격리 :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14일 의무격리 기간 동안 요트(또는 푸켓 소형 크루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 관광객들은 위치 추적 및 체온과 혈압(심박수)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 손목밴드를 착용</li> </ul>

		<p>(동 장치는 바다 위에서도 반경 10km까지 정보 송출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1일부터 '호텔지역(구내)격리' 허용('21.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앙마이, 푸켓, 그라비, 쑤랏타니(꼬따오, 꼬싸무이, 꼬팡안), 촌부리(피타야) 입국자를 대상으로 호텔지역(구내)격리(Area Hotel Quarantine)를 허용함</li> </ul> </li> <li>○ 4.1일부터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 단계적 완화 발표('21.3.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1일부터 fit-to-fly 서류 필요 없음, 백신접종증명서(vaccination certificate) 및 코로나 음성증명서(Covid-19 free certificate)를 지참 시 7일 격리 및 1차례 코로나19 검사 실시, 동 서류를 지참하지 않은 입국자는 10일간 격리 및 2차례 코로나19 검사를 실시</li> <li>- 변이 바이러스 발생지역 입국자는 기존대로 14일 격리</li> </ul> </li> </ul>
싱가포르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 관광청(STB), Enterprise Singapore 및 센토사개발조합과 9개월 동안 4천5백만 달러 규모의 국내관광활성화 캠페인 실시</li> <li>○ SingapoRediscovered Vouchers(\$\$100) 배포계획 등 세부사항 발표('20.9.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세 이상 국민에게 올 12월 배포 예정, 내년 6월까지 유효</li> </ul> </li> <li>○ '20.9.18일부터 싱가포르 관광지 수용인원의 허용범위 확대(25%→50%, 야외 행사의 경우 50명→250명 미만)</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호주 빅토리아 주와 Air Travel Pass(싱가포르 입국만 허용) 실시</li> <li>○ 14일 이내 호주(New South Wales)·영국 방문이력이 있는 여행객은 '20.12.24일부터 싱가포르 입국 및 환승 금지, 사전에 입국승인을 받은 여행객에도 해당</li> <li>○ 단기 출장자들이 격리 없이 비즈니스 출장 일정을 수행할 수 있는 'Connect@Singapore 제도' 시범 계획 시행('21.2.18)</li> <li>○ <b>싱가포르-대만(4월 예정), 싱가포르-호주(7월 예정) 트래블버블 추진 논의 중</b></li> </ul>
말레이시아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복단계의 이동제한명령(Recovery Movement Control Order, '20.6.10~8.31) 발표와 함께 코로나19 위험지역을 제외한 국내관광 전면 허용('20.6.7)</li> <li>○ 7월부터 테마파크/워터파크 영업 허가('20.6.30)</li> <li>○ 문화관광예술부, 국내여행활성화 캠페인 '큐티큐티 말레이시아' 실시 및 홍보를 위한 5개 TV 광고 런칭('20.8.26)</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10일부터 말린 싱가포르 상용 및 공무 출장자 자유롭게 입출국 가능한 Green Lane 실시('20.7.15)</li> <li>○ 정부, 2021년 2분기까지 외래관광객 입국 금지 가능성 언급. 각국 코로나19 2~3차 팬데믹에 따라 Green Lane 도입 재검토</li> <li>○ 인도네시아와 Green Lane 협상 타결, 양국 관광객 상호 왕래 협의('21.2.6)</li> </ul>
베트남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ietnamese People Travel in Vietnam 캠페인('20.6.1~연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권, 호텔, 입장료 할인 등</li> </ul> </li> <li>○ 하노이 시, "safe-friendly-quality-attractive" 캠페인 추진</li> <li>○ 다낭 시, "Danang Thank you" 캠페인 추진</li> <li>○ 대부분 국내선 운항 재개('20.6.4)</li> <li>○ 철도청, 휴가철 탑승권 4,600장 50% 할인 판매('20.6.22~7.8)</li> <li>○ 베트남항공, 7.22일 이후로 국내선 총 61개 노선 운영 계획. 국내 관광활성화 일환으로 할인 프로모션 진행</li> <li>○ 베트남 호치민-다낭 국내선 항공 운항 재개('20.9.10)</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여객운송 제한 완화 : 50% → 70%</li> <li>○ 호텔업계, '20.7월부터 운영재개 계획 발표</li> <li>○ 발리, 국내관광 허용(7월말) 계획 발표</li> <li>○ 2단계 국내관광객 개방 발표('20.7.31)</li> <li>○ 자카르타 주정부, 자카르타 진출입시 신속항원검사 강제</li> <li>○ 자바 및 발리섬, '21.2.8일까지 지역 활동제한조치 시행</li> </ul>
인도네시아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8.17일 한-인니 비즈니스 출장 신속입국(Fast Track) 시행</li> <li>○ 싱가포르-인니 비땀-빈딕섬 한정 출입 허용하는 코로나 통로(Corona Corridor) 시행</li> <li>○ 외국인 대상 '21.2.8일까지 입국 금지 조치 시행</li> <li>○ 말레이시아와 Green Lane 협상 타결('21.2.6), 양국 관광객 상호 왕래 협의</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6.2일부터 국내선 운항 재개(필리핀항공, 에어아시아, 세부퍼시픽)</li> <li>○ 팔라완섬 엘니도 국내관광 재개</li> <li>○ 국내선 항공 정상화를 위한 코로나19 항원 속성검사 의무화 채택 예정</li> <li>○ '20.10.1일 보리카이섬 국내관광 재개(72시간 내 음성확인서 의무제출)</li> <li>○ 지역사회 여행업 영업 재개 허용, 정원의 50% 이내 운영가능</li> </ul>
필리핀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2.26일부터 은퇴비자유화비자(2020.3.20 이전) 소지 외국인의 입국 허용 등 외국인 대상 필리핀 입국 금지조치 완화</li> <li>○ '21.4.21일까지 외국인 입국 금지령 발표</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5.25일부터 국내선 운항 재개</li> <li>○ '20.7.6일부터 전국 주요 유적지(타지마할 제외) 재개방 발표</li> <li>○ 관광부장관, 국내여행 활성화에 집중할 정책을 펼칠 예정임을 발표('20.8.27)</li> </ul>
인도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글라데시와 에어버블 체결 예정, 10.28일부터 인도 방글라데시 항공 재개</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글라데시와 에어버블 체결 예정, 10.28일부터 인도 방글라데시 항공 재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3.2일 기준 27개국과 에어버블 체결</li> <li>*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UAE, 카타르, 몰디브, 일본, 바레인, 나이지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부탄, 케냐, 오만, 우크라이나, 방글라데시, 네덜란드, 탄자니아, 르완다, 에티오피아, 쿠웨이트, 네팔, 러시아, 세이셸, 우즈베키스탄</li> </ul>
	아웃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인 관광객 허용 국가 현황</li> <li>* 총 9개국('21.3.16 기준) : 몰디브, 두바이, 러시아, 이집트, 케냐, 우크라이나, 바레인, 네팔, 터키</li> </ul>
UAE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변, 호텔 등 Staycation을 중심으로 제한된 국내관광 허용</li> <li>○ 쇼핑몰, 관광지 운영 재개</li> <li>○ 국내 관광 재개의 신호탄으로 'Go Safe Certification*' 출범</li> <li>* 호텔, 쇼핑몰, 레스토랑, 관광 명소 등 대상 안전청결 인증 제도</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7.7일부터 두바이 인바운드 관광 재개</li> <li>○ 두바이, 해외 의료관광 마케팅 재개('20년 50만명 유치 목표)</li> <li>○ '20.8.5일부터 한-UAE 간 신속 입국(Fast Track) 제도 시행</li> <li>○ 아부다비 긴급재난위원회, 아부다비 입국 허용 조건 승인, '20.8.27일부터 시행</li> <li>○ '20.12.24일부터 아부다비 인바운드 관광 재개, 관광객 입국 허용</li> <li>○ 아부다비 정부, 아부다비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대상 국가(Green List) 업데이트</li> <li>* 총 13개국('21.3.8 기준) :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카자흐스탄, 부탄, 부르나이, 중국, 그린란드, 홍콩,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호주, 뉴질랜드, 모리셔스</li> </ul>
터키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5.28일부터 국내관광 재개</li> <li>○ 터키 내 14개 도시간 항공 운항 재개(6.18) 계획 발표('20.6.2)</li> <li>○ 문화관광부, 7.1일부터 모든 관광시설 영업 재개('20.6.11)</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 중순부터 국제관광 재개</li> <li>○ 유럽 6개국(6개 도시) 항공 운항 재개(6.18) 발표('20.6.2)</li> <li>○ 9개국 36도시로부터 전세기 입항 시작(7월 1주차 우크라이나-네팔 전세기 탑승객 1만 명 입국)</li> <li>○ 터키 안탈리아에 일 1만 명 외래관광객 도착('20.7.20)</li> </ul>
카자흐스탄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5.18일부터 여행사 영업재개 허가</li> <li>○ '20.5.25부터 전체 국내 항공노선 운항 허가</li> <li>○ '20.6.1일부터 호텔, 리조트, 휴양지 영업재개 허가</li> </ul>
몽골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5.1일부터 국제선 운항 재개 관련 조사 중</li> </ul>
미국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 현대미술관 재개관(8.29)</li> <li>○ 미국여행협회(U.S. Travel Association), 국내여행 홍보캠페인 'Let's go there' 출범('20.9.8)</li> <li>○ 미 CDC, 크루즈 항해금지 명령 해제, 조건적 크루즈 운항 허용(10.31)</li> <li>○ 카니발·디즈니 크루즈 라인, 5월까지 모든 크루즈 운항 중단</li> <li>○ 미 CDC, 크루즈 터미널 및 선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시(2.2)</li> <li>○ 뉴욕시 식당 실내영업 재개(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 수용인원의 25% 제한, 오후 10시까지 영업 가능</li> </ul> </li> <li>○ 뉴욕주 실내외 경기장·공연장 2.23일부터 제한적 입장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만 명 이상 수용 가능한 공연장·경기장은 최대 수용인원의 10%로 입장 제한</li> <li>- 경기, 공연 관람 72시간 내 검사 받은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 필요</li> </ul> </li> <li>○ 뉴욕주 놀이공원 및 실내 가족 휴양시설 제한적 재개장('21.3.26)</li> <li>○ 하와이주, 주민 대상 섣간 이동을 위한 백신여권 도입(3월)</li> <li>○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CDPH), 4.1일부터 메이저리그 야구장 및 디즈니랜드 재개 제한적 허용</li> <li>○ 뉴욕주, 4월부터 국내 이동 의무격리 해제</li> <li>○ 아루바 정부, 젯블루 항공 이용 입국 시 백신여권 도입('21.3.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루바는 Commons Project Foundation에서 개발한 디지털 건강 여권 'Common Pass' 플랫폼을 국가 정부로는 최초로 채택</li> <li>- 3.16일부터 보스턴발 아루바행 젯블루 탑승객 대상으로 시행</li> <li>- 아루바 입국 시 72시간 전 PCR 테스트 음성 결과를 증명해야 하며, Common Pass로 음성 증명 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음</li> </ul> </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와이주, 일본 여행객 대상 지정 기관에서 발급된 음성확인서 제출 시 2주 격리 면제(11.6). 12.17일부터 방문객 의무격리 기간 14일에서 10일로 단축.</li> <li>○ 한국인 대상으로는 면제 검토 중(10.29)</li> <li>○ 미 국무부,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에서 2단계 '주의 강화(Exercise Increased Caution)'로 하향 조정(1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6일부터 미국행 여행객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 코로나19 검사 음성 증명 필수</li> <li>○ 1.25일 남아공·영국·아일랜드 등 26개국 입국 금지 지속 발표</li> <li>○ 미국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의무화 계획 발표(1.21), 세부 지침 향후 발표 예정</li> </ul> </li> </ul>
캐나다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어캐나다, 지역노선 수신키 운항 중지 발표</li> <li>○ 대서양 연안 4개 주로의 여행제한(업무, 의료, 생필품 조달 목적은 예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트래블버블(대서양 연안 4개 주) 방문시 4개주 이외 지역에서의 방문자는 2주 격리, 4개 주 간에는 자유 이동</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나다 국경 폐쇄(외국인 입국 규제) 유지(' 20.3.18~)</li> <li>○ 캐나다-미국 육로국경 봉쇄(' 20.3.21~' 21.4.21) * 필수목적 국경통과로 제한(식품, 의약품, 기타 중요 품목 유통)</li> <li>○ 모든 해외입국자(자국민 포함) 코로나19 증상여부 관계없이 14일 의무 자기격리(' 20.4.1~)</li> <li>○ 입국 전 ArriveCAN 어플 등록 및 연락처자기격리 계획 제공 필수(' 20.11.21~)</li> <li>○ 모든 입국자(자국민 포함, 5세 이상) 대상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요구(' 21.1.7~)</li> <li>* 도착 14일-90일 전 코로나19 양성확인서를 제출해도 됨</li> <li>○ 모든 입국자에 입국 시 PCR 테스트 의무화, 정부 지정 호텔 의무격리(3일), 검사결과 음성 시 자택 격리, 양성 시 정부지정 시설서 격리(1.29)</li> <li>○ 4개 공항으로 국제선 운항 제한(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 캘거리)</li> <li>○ 육로 입국자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도입(2.15~)</li> </ul>
호주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별로 지역 간 (Interstate) 여행 허가여부 상이, 수시변동</li> <li>- NSW(뉴사우스웨일스주), ACT(캔버라), QLD(퀸즐랜드), VIC(빅토리아), SA(남호주), WA(서호주), NT(Northern Territory) 주 국경 대부분 개방 상태.</li> <li>- 단, SA주는 모든 여행자 온라인 Cross Border Travel Registration 작성 요청</li> <li>- 단, NT주는 모든 여행자 온라인 Border Entry Form 작성 요청.</li> <li>- WA주는 3월 16일부터 VIC주와 국경 재개방.</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질랜드-쿡제도 간 일방향 여행안전지대(Travel Bubble) 21.1.21 개시</li> <li>- 쿡제도 주민만 뉴질랜드를 자기격리 없이 방문 가능</li> <li>○ 호주-뉴질랜드 간 쌍방향 여행안전지대(Travel Bubble) 21. 4월 경 시행 추진</li> <li>- 현재 뉴질랜드 주민만 호주를 자기격리 없이 방문 가능한 일방향 트래블 버블 시행 중(' 20.10.16.부터)</li> <li>- 뉴질랜드 신규 감염자 발생시 트래블 버블 일시 중단 및 재개 반복</li> <li>- 3.15일 기준 오클랜드 지역 대상 핫스팟 지정 해제로 트래블 버블 재개</li> <li>○ 해외에서 호주로 입국하는 여행자 대상 백신 증명서(vaccine certificate) 제출 의무화 제도 도입 예정</li> </ul>
독일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전면 봉쇄령 3.7일까지 연장</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1일부터 2주간 통계에 의거 국가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여행경고, 불필요한 여행 자제 권고, 여행 주의 등 3단계로 발령</li> <li>* 한국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불필요한 여행 자제 권고' 단계 해당</li> <li>○ 2021.1.1.부터 한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모든 여행목적 체류 가능</li> <li>○ 변이 바이러스 위험지역 입국금지 3.3일까지 연장</li> </ul>
프랑스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으로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나 일부 제한조치 유지</li> <li>○ 6.26부터 오를리공항(국내 및 유럽노선 거점) 운영 재개</li> <li>○ 국내관광 활성화에 집중</li> <li>- (마르세유) ~8.31까지 4개 박물관 무료입장</li> <li>- (노르망디) 국내관광 신규 캠페인(#올_여름은_노르망디에서) 추진</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역내) 출발 72시간 내 PCR검사 음성 결과확인서 제출 의무</li> <li>○ (EU 역외) 1.31일부터 비유럽연합(EU) 국경 잠정 폐쇄 (지속)</li> <li>* 불가피한 직업상의 사유 또는 건강상의 사유 등 예외적 입국 시, 입국목적 확인서, 72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 결과확인서(영문, 11세이상), 7일간 자발적 자기격리 및 7일 경과 후 PCR재검사 실시 동의 및 서약서 필수지참</li> <li>○ 한국 등 7개 국가* 대상 예외적 여행제한 완화(3.11~). 72시간 이내 음성결과 증명서 지참 시 입국 허용</li> <li>* 한국, 호주,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영국, 싱가포르 7개 국</li> <li>* 한국 등 상기 7개국은 코로나19 안전국가(Green List)로 지정, '20년에도 예외적 여행제한 완화(무비자 입국 유지 등)를 적용한 바 있음</li> </ul>
영국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ospitality 업계 일부(호텔, 레스토랑, 펍 등) 영업 재개(7.4~)</li> <li>○ 3차 봉쇄령으로 숙박업소 비즈니스 등 한정된 사유 외 판매 금지, 요식업 테이크아웃, 배달 외 업계 영업 금지(1.6~)</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격리 면제 부여 대상 59개 지역 발표(7.10~) * 아웃바운드도 적용</li> <li>- 국가별 감염 발생상황에 따라 대상국가 변경 지속</li> <li>○ 모든 불필요한 해외여행 금지 권고에서 67개 지역 해제(7.4~)</li> <li>○ 국내외 여행 금지(3차 봉쇄령/1.6~)</li> <li>○ 자기격리 면제 부여 제도(travel corridor) 긴급 중지(1.18~)</li> </ul>
러시아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1일부터 의료면허 소지 치료목적 휴양소 영업 재개</li> <li>○ 7.1일 러시아 지역 간 국내관광 재개</li> <li>○ 12.15일까지 국내관광 활성화 캐시백 캠페인 시행</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1일부터 국제선 일부 운항 재개</li> </ul>

## 참고2

## 국가별 항공/페리 동향 [3.23 기준]

### <한-중국>

#### □ 항공 동향 \*민항국(民航局) 통지 의거, 3.29부터 항공사별 1개 노선 외, 전 노선 운항중단

\* 중국 민항국(民航局)의 《5·1정책(항공사별 1개 국가, 1개 노선, 1주 1편 운항) (3.29~) 지속 하, 《제5차 국제항공편 조정(외국항공사의 중국 노선 조건부 운항 재개 ;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 (6.8~)정책 발표에 의거, 한-중 양국 국제선 확대 합의에 따라 항공노선 지속 증편 중(7월~)

구분	항공사	운항노선	운항일자
국적 항공사	대한항공(KE)	인천-선양	매주 금요일
		인천-광저우	매주 수요일
		인천-톈진	매주 화요일
		인천-다롄	매주 금요일
	아시아나항공(OZ)	인천-창춘	매주 화요일
		인천-난징	매주 일요일
		인천-청두	매주 목요일
		인천-하얼빈	매주 목요일
	제주항공(7C)	인천-웨이하이	매주 수요일
		인천-하얼빈	매주 수요일
	진에어(LJ)	제주-시안	매주 목·토요일
	에어부산(BX)	인천-닝보	매주 일요일
		부산-칭다오	매주 목요일
	티웨이항공(TW)	대구-엔지	매주 목요일
		인천-우한	매주 수요일
에어서울(RS)	인천-엔타이	매주 목요일	
	인천-칭다오	매주 화요일	
중국 항공사	중국국제항공(CA)	인천-베이징	매주 금요일*10.30부터 베이징으로 직접 입국
		인천-항저우	매주 화요일
		인천-다롄	매월 첫째주 목요일 (2~3월 월1회, 2월 4일 및 3월 4일)
	중국남방항공(CZ)	인천-선양	매주 일요일
		인천-광저우	매주 목요일
	중국동방항공(MU)	인천-상하이 푸둥	매주 금요일
		인천-우시	매주 목요일
	샤먼항공(MF)	인천-샤먼	매주 월·토요일
	산둥항공(SC)	인천-칭다오	매주 금요일
		인천-엔타이	매주 목요일
선전항공(ZH)	인천-선전	매주 수요일	
칭다오항공(QW)	인천-칭다오	매주 토·일요일	
춘추항공(9C)	인천-상하이 푸둥	매주 월요일	
	인천-닝보	매주 금요일	

#### □ 페리 동향

지역	노선	내용
톈진	(진천선무)인천-톈진	1.20부터 여객운송 중지
동북3성	(동방명주)인천-단둥	1.28부터 여객운송 중지(화물수송은 지속)
	(범영훼리)인천-잉커우	1.23~2.2 선박점검, 2.3부터 여객운송 중지(화물운송 재개)
산둥성	(대인훼리)인천-다롄항	1.28~2.17 선박 정기점검으로 휴항 / 2.20부터 여객 중지(화물 재개)
	모든 노선	승객 운송 중지, 화물 정상 운송
장쑤성	(연운항훼리)인천-렌윈강	여객 탑승 중지(2.1~)

## <한-홍콩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감편운영	인천-홍콩 주 3회(수, 금, 일) 운항( '20.6.16-)
아시아나	감편운영	인천-홍콩 주 2회(화, 금) 운항( '20.3.24-)
티웨이	운항중단	인천-홍콩, 대구-홍콩, 제주-홍콩(기 중단-추후 공지 시)
이스타	운항중단	인천-홍콩( '20.2.26-), 제주-홍콩( '20.3.3-)
에어부산	운항중단	김해-홍콩( '20.2.16-)
제주에어	운항중단	인천-홍콩( '20.2.18-), 제주-홍콩( '20.2.12-)
진에어	운항중단	인천-홍콩(기 중단-추후 공지시)
에어서울	운항중단	인천-홍콩( '20.2.26-)
캐세이퍼시픽	운항중단	인천-홍콩( '20.3.1-)
캐세이드래곤	운항중단	제주-홍콩( '20.2.6-), 부산( '20.2.6-) * 캐세이드래곤 10.21 폐업
홍콩익스프레스	운항중단	인천-홍콩( '20.3.3-추후 공지시), 김해-홍콩( '20.3.3-추후 공지시)
홍콩에어라인	운항중단	인천-홍콩( '20.3.2-)

## <한-대만>

### □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중지	타오위안-부산(2020.2.25~)
	운항	타오위안-인천(주2회, 2.12 운항취소)
아시아나	운항중지	카오슝-인천(2020.2.26~), 타이중-인천(2020.2.26~)
	운항	타오위안-인천(주2회, 2.13 운항취소, 3.1-3.27 주4회로 증편 예정)
진에어	운항중지	타오위안-인천(화물기만 주2회 운항중)
제주항공	운항중지	카오슝-인천(2020.2.26~), 카오슝-제주(2020.2.25~), 타오위안-대구(2020.2.26~), 타오위안-무안(2020.2.24~), 타오위안-부산(2020.2.26~), 타오위안-인천(2020.2.26~), 타오위안-제주(2020.2.26~), 타오위안-청주(2020.2.17~), 카오슝-부산(2020.6.1~)
에어부산	운항중지	카오슝-부산(2020.2.25~), 카오슝-인천(운항취소), 타오위안-대구(운항취소)* 타오위안-부산(2020.2.17~)
이스타	운항중지	카오슝-인천(2020.2.26~), 송산-김포(2020.2.27~), 타오위안-인천(2020.2.26~), 타오위안-제주(2020.2.17~), 타오위안-청주(2020.2.19~), 화롄-인천(2020.2.18~), 타오위안-부산(2020.2.16~), 화롄-부산(2020.2.18~) ※2020.9.4 이후 업데이트 없음
티웨이	운항중지	카오슝-부산(2020.2.21~), 카오슝-인천(2020.2.26~), 송산-김포(2020.2.27~), 타오위안-대구(2020.2.11~), 타이중-인천(2020.2.25~), 타이중-부산(2020.2.18~)
플라이강원	운항중지	타오위안-양양(2020.2.25~)
중화항공	운항중지	타오위안-부산(2020.2.28~), 카오슝-인천(2020.2.28~), 송산-김포(2020.2.26~)
	운항	타오위안-인천(주1회)
에바항공	운항중지	송산-김포(2020.2.26~), 타이중-인천(2020.2.27~), 카오슝-인천(2020.2.27~)
	운항	타오위안-인천(주2회)
유니항공	운항중지	타오위안-인천(2020.2.26~)
타이거항공	운항중지	타오위안-대구(2020.2.25~), 타오위안-부산(2020.2.27~), 타오위안-제주(2020.2.25~), 타오위안-인천(2020.2.25~)
캐세이퍼시픽	운항중지	타오위안-인천(2020.2.10~)
타이항공	운항중지	타오위안-인천(2020.3.5~)
스쿠트항공	운항	타오위안-인천(주 3회, ~ '21.3.27)

## □ 크루즈 동향

지역	노선	내용
지롱	(프린세스)지롱-일본-한국-지롱	'21년 방한노선 운항계획 없음
지롱	(코스타)지롱-한국-일본-지롱	'21년 방한노선 운항계획 없음

## <한-몽골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몽골항공	운항중단	인천-울란바토르(20.2.25~21.3.31), 부산-울란바토르(20.2.25~21.3.31)
대한항공	운항중단	인천-울란바토르(20.2.25~21.3.31)
에어부산	운항중단	부산-울란바토르(20.2.25~21.3.31)
아시아나	운항중단	인천-울란바토르(20.2.25~21.3.31)

## <한-일본>

### □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일본항공	운항중단	한일 전 노선 운항중단(~3.31)
대한항공	운항중단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3.27)
	감편운항	나리타-인천(~3.31 매일 1편 운항, 2.5 비운항) 간사이-인천(~4.30 주 3편(수, 목, 토) 운항 3.6, 13, 20 비운항) 나고야-인천(~4.24 주 1편(토) 운항) 후쿠오카-인천(~4.30 매주 목요일 운항/3, 4, 11, 18 비운항) 후쿠오카-인천(매주 목요일 운항/긴급사태선언 발령으로 3.4까지 운항취소)
아시아나항공	운항중단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3.27)
	감편운항	나리타-인천(~3.27 매일 1편 운항, 2.16, 18, 20, 23, 25, 27 비운항) 간사이-인천(~4.30, 매일 1편 운항, 3.1~4.6, 8~11, 13 비운항) 나고야-인천(~3.27 주 1편(금) 운항, 3.12 비운항, 3.28~4.30 주 2편(월, 금) 운항) 후쿠오카-인천(~3.27 주 3편(월, 화, 금) 운항, 3.5, 8~10, 12, 14~17, 19, 21 비운항, 3.28~4.30 주 4편(월, 수, 금, 일) 운항)
에어서울	운항중단	일본 전 노선 운항중단
티웨이항공	운항중단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3.27)
	감편운항	나리타-인천(~3.27, 주 1편(금) 운항) 간사이-인천(~2.20, 주 1편(목) 운항) 후쿠오카-인천(~3.27 주 1편(토) 운항)
에어부산	운항중단	일본 전 노선 운항중단(~3.27)
진에어	운항중단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3.27)
	감편운항	나리타-인천(~3.27, 주 1편(수) 운항) 간사이-인천(~4.30, 주 1편(금) 운항) 후쿠오카-인천(~4.30, 매주 화요일 운항 *3/9운휴)
피치항공	운항중단	일본 전 노선 운항중단(~3.27)
ZIPAIR	신규취항	나리타-인천 (10.16~, 주 2편(화, 금))
제주항공	운항중단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3.27)
	감편운항	나리타-인천 (~3.27 주 1편(토) 운항) 간사이-인천 (~3.27 주 2편(금, 일) 운항, 3.5, 12 비운항)

## □ 페리 동향

지역	노선	내용
일본	(비틀) 후쿠오카-부산	당분간 운휴
일본	(카메리아) 후쿠오카-부산	당분간 운휴
일본	(칸푸페리) 시모노세키-부산	전 노선 운휴 (~3.31)
일본	(팬스타) 오사카-부산	당분간 운휴

## <한-태국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부분운항	방콕-인천(KE654, 주 7회) 운항
아시아나항공	부분운항	방콕-인천(OZ742, 주 4회, 수/금/토/일) 운항 * 3.1일부터 주 2회 → 주 4회
타이항공	부분운항	방콕-인천(TG656, 주 1회, 수) 운항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 이스타항공, 타이항공, 에어아시아	운항중단	전 노선 현재 운항 중단 - 방콕-인천, 방콕-부산, 방콕-대구, 방콕-무안 등

## <한-싱가포르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감편	싱가포르→인천 주 3회(월/수/금, ~2021.4)
아시아나	감편	싱가포르↔인천 주 3회(수/금/일, ~2021.4)
제주항공	운항중단	싱가포르↔부산 노선 비운항(~2021.7)
싱가포르항공	감편	싱가포르↔인천 주 7회(월~일, ~2021.5)

## <한-필리핀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감편	마닐라→인천 (KE624 주7회) 1개 노선 운항
아시아나	감편	마닐라→인천(OZ70 주7회) 1개 노선 운항
제주항공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필리핀항공	감편	마닐라→인천(PR5468/PR5469 주 2회) 1개 노선 운항
세부퍼시픽	감편	마닐라→인천(5J194 주1회) 1개 노선 운항
에어부산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티웨이항공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이스타항공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플라이강원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진에어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팬퍼시픽항공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에어서울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에어아시아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델타항공	취항 연기	인천-마닐라(~미정)

## <한-베트남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	인천-하노이 : 주 3회 운항 인천-호치민 : 주 7회 운항 * 한국행 운항편만 승객 탑승 가능
에어서울	운항중단	인천-베트남 운항중단(~미정)
아시아나	감편운항	인천-하노이 주 3회 운항 * 한국에서는 승객 없이 빈 항공기로 베트남에 입국하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승객 및 화물 운송
에어부산	운항중단	인천-베트남 운항중단(~미정)
티웨이항공	운항중단	호치민-인천 노선 주 2회 운항 재개( '20.7.22~) * 한국행 운항편만 승객 탑승 가능
진에어	운항중단	인천-베트남 운항중단(~미정)
제주항공	운항중단	인천-베트남 운항중단(~미정)
밤부항공	운항	인천-하노이 : 12월부터 주 1회 운항 예정 * 한국행 운항편만 승객 탑승 가능
베트남항공	운항	인천-하노이 : 주 1회 운항 * 한국행 운항편만 승객 탑승 가능

## <한-말레이시아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감편	인천-KL 주 2~3회 운항 * 항공화물과 말레이시아를 경유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수요가 주를 이룸
에어아시아	운항중단	인천-KL 잠정 운항 중단
말레이시아항공	운항중단	인천-KL 잠정 운항 중단

## <한-인도네시아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가루다 인도네시아	감편	자카르타-인천 주 2회 운항(화, 목)
	운항중단	발리-인천 운항중단
대한항공	감편	자카르타-인천 주 3회 운항(화, 금, 일) 발리-인천 운항 중단(~2021.3)
아시아나항공	감편	자카르타-인천 주 3회 운항(수, 금, 일)

## <한-인도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에어 인디아	운항중단	델리-인천노선 주 4편(화, 토) (~미정)
대한항공	운항중단	뭄바이-인천노선(주 3회) → 뭄바이 지점 폐쇄 델리-인천노선 (~미정)

## <한-네팔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중단	인천-카트만두 운항중단(~2021.3)

## <한-UAE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중단	인천-두바이( '20.3.5~)
에미레이트항공	부분재개	인천-두바이 주6회( '20.10월~)
에티하드항공	운항재개	인천-아부다비 주7회( '20.6.10~)

\* 한국은 저위험 국가로 분류되어 6.23일부터 목적 제한 없이 한국으로 여행(이동) 가능(단, 비자발급 필요)

\* 단, 예약 상황에 따라(예약률이 저조할 경우) 항공편 취소 빈번

## <한-터키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터키항공	운항재개	이스탄불-인천 주 3회 운항
대한항공	운항중단	이스탄불-인천(~'21.10월)
아시아나	운항중단	이스탄불-인천(~'21.3월)

\* 단, 양국 간 비자 면제 협정 중단 상태로 별도 방문비자 발급 필요

## <한-카자흐스탄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에어아스타나	감편운항	알마티-인천 주 2회(월/금)→1회(월) 운항 ( '20.7.8~)
아시아나	증편	알마티-인천(격주1회→주1회(목)) * '20.12.3부터

## <한-우즈베키스탄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우즈베키스탄항공	운항중단	타쉬켄트-인천 (주7회) * '20.3.16~
아시아나	운항중단	타쉬켄트-인천 (주3회) * '20.3.16~
대한항공	운항중단	타쉬켄트-인천 (주3회) * '20.3.16~

## <한-스리랑카, 몰디브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델리지사 관할구역인 몰디브-스리랑카 구간 대한항공 운항이 잠정 중단</li> <li>- 몰디브(말레)-스리랑카(콜롬보) 운항 중단(~2021.3)</li> <li>- 스리랑카-한국(인천) 운항 중단(~2021.3)</li> </ul>

## <한-영국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중단	런던-인천( '20.12.23~4.1)
아시아나	운항중단	런던-인천( '20.12.23~4.1)
영국항공	운항중단	런던-인천( '20.4.11~2021년 하반기)

## <한-이탈리아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중단	인천-로마(~2.28) 인천-밀라노(~2.28)
아시아나항공	운항중단	인천-로마(~3.27) 인천-베니스(~3.27)

## <한-핀란드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핀에어	감편	헬싱키-인천( '20.7.3~ '21.4.20/ 주3회(화,금,토))
	기타	헬싱키-부산 신규취항 연기( '20.3.30→ '21년 6월 예정)

## <한-프랑스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감편	인천-파리(주7회→주3회, ~2.28)
아시아나항공	운항중단	인천-파리(~3.27)
에어프랑스	감편	인천-파리(주7회→주3회, ~2.28)

## <한-스페인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중단	인천-마드리드(~2.28) 인천-바르셀로나(~2.28)
아시아나항공	운항중단	인천-바르셀로나(~3.27)

## <한-독일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루프트한자	감편	뮌헨-인천(12.1~3.28) 운휴, (3.29~4.30) 주3회 운항, * 5.1부터 매일 운항 프랑크푸르트-인천 (~4.30) 주3회 감편운행 연장 * 5.1부터 매일 운항
아시아나항공	감편	프랑크푸르트-인천 ( '20.10.12~4.30) 주3회, 감편운행 연장
대한항공	감편	프랑크푸르트-인천( '20.7.1~4.30) 주 2회, 감편운행 연장

## <한-폴란드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LOT	운항재개	바르샤바-인천( '20.7.3~) 주 4회(월,수,금,일)



## <한-미국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정상운행 (1)	인천-애틀랜타(주7회, '20.9.1~)
	감편 (8)	인천-샌프란시스코(주5회, ~2021.4.30) 인천-뉴욕(주7회, ~2021.4.30) 인천-시카고(주3회, ~2021.4.30) 인천-워싱턴(주4회, ~2021.4.30) 인천-LA(주10회, 2021.3.1.~3.31) (주11회, 2021.4.1.~4.30) 인천-시애틀(주3회, ~2021.4.30) 인천-댈러스(주3회, ~2021.4.30) 인천-보스턴(주3회, ~2021.4.30)
	운항중단 (2)	인천-라스베가스(~2021.4.30) 인천-호놀룰루(~2021.4.30)
아시아나	감편 (4)	인천-뉴욕(주5회, 2021.3.1.~3.31) (주7회, 2021.3.28~4.30) (3.30, 4.6, 13 비운항) 인천-LA(주9회, ~2021.4.30) (3.20, 24, 27 비운항) 인천-샌프란시스코(주4회, ~2021.4.30) (3.24, 4.7, 14 비운항) 인천-시애틀(주3회, ~2021.4.30) (3.19 비운항)
	운항중단 (1)	인천-호놀룰루(~2021.4.30)
델타	정상운행 (1)	인천-디트로이트(주7회 '20.6.1~)
	감편 (2)	인천-시애틀(주7회→주4회, '20.7.1~) 인천-애틀랜타(주7회→주5회, '20.8.1~)
	운항중단 (1)	인천-미니애폴리스('20.2.29 - '20.8.31)
유나이티드	감편 (1)	인천-샌프란시스코(주7회→주3회, '20.7.1~)
아메리칸	정상운행 (1)	인천-댈러스(주7회, '20.6.4~)
하와이안	감편 (1)	인천-호놀룰루('20.11.25~3.31 주5회→주1회) ( '21.4.1~4.30 주1회→주2회)

\* 대한항공 : 미국노선 전편 발열 체크 의무화 및 추가 기내 방역 강화

## <한-캐나다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에어캐나다	감편	인천-밴쿠버 : 주 2회 * 입국자 호텔격리로 주3회에서 금주부터 주2회 운행
	감편	인천-토론토 : 주 1회 (3.15~)
대한항공	감편	인천-밴쿠버 : 주 4회 * 3월 주 3회, 4월 주 4회, 5월부터 주 7회(예정) 인천-토론토 : 주 3회 * 4월까지 주 3회, 5월부터 주 7회(예정)

## <한-러시아>

### □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중단	블라디보스톡-인천( '20.3.1~) 모스크바-인천( '20.3.5~)
	운항재개	모스크바-인천( '20.10.9~) * 12.4일부터 매주 금요일 1회 운항(기존 격주 1회에서 주 1회로 증편)
오로라항공	운항재개	모스크바-인천( '20.9.16~) : 주 7회 운항 하바롭스크-인천( '20.9.17~) : 주 7회 운항 유즈노사할린스크-인천( '20.9.16~) : 주 7회 운항 * 8.1일부터 온라인 예약을 받고 있으나 현재 연말까지 운항 일정 취소
S7항공	운항중단	노보시비르스크-인천( '20.9.2~) : 주 2회 운항(수, 토) 블라디보스톡-인천( '20.3.1~) 이르쿠츠크-인천( '20.3.1~)
야쿠티아항공	운항중단	야쿠츠크-인천( '20.3.1~)
제주항공	운항중단	블라디보스톡-인천( '20.3.1~)
에어부산		블라디보스톡-부산( '20.2.26~)
아에로플로트	운항재개	모스크바-인천( '20.10.1~) * 12.3일부터 매주 목요일 1회 운항(기존 격주 1회에서 주 1회로 증편)

### □ 페리 동향

지역	노선	내용
블라디보스톡	동해-블라디보스톡	동계 정기휴항 기간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무기한 연장 (당초 휴항 예정 기간 : 2019년12월 ~ 2020년 3월초)

## <한-호주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젯스타	운항중단	골드코스트-인천
대한항공	부정기운항	브리즈번-인천
		시드니-인천 2021년 3 ~ 6월 중 월 2회
아시아나항공	부정기운항	시드니-인천 2021년 3 ~ 6월 중 월 4회

## <한-뉴질랜드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에어뉴질랜드	부정기운항	오클랜드-인천 2021년 3 ~ 5월 중 월 1회
대한항공	부정기운항	오클랜드-인천 2021년 1 ~ 6월 중 월 2회

**참고3**

**한국 여행 금지·자제 관련 조치 (해외지사 동향보고, 3.23)**

□ **총 28개국**

No	구분	국가	관리 조치
1	중국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 일부국가·미국·이란·한국 등 코로나19 고위험 15개국 대상 자국민 여행자제 경보 발령(중국 외교부, '20.3.17)</li> <li>▶ 중국인 해외여행 자제 경보 발령(중국 외교부, '20.4.21)</li> </ul>
2	비중국 중화권	홍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적색경고(여행계획조정, 불필요한 여행자제) 지역으로 격상(홍콩 보안국, '20.2.25)</li> <li>▶ 해외 모든 지역 적색경고(여행계획조정, 불필요한 여행자제) 발령(홍콩 보안국, '20.3.17)</li> <li>▶ 해외지역 코로나 위험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분류('21.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위험지역(브라질, 남아공, 영국, 아일랜드)</li> <li>- 위험지역(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20개국)</li> <li>- 주의지역(그 외 모든 해외지역)</li> </ul> </li> </ul>
3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4단계(방문부적합, 최대한 빠른 철수) 발령(대만 외교부, '20.3.19)</li> <li>▶ 해외 모든 지역 여행 적색경보 발령(대만 외교부, '20.3.21)</li> </ul>
4		마카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코로나19 고위험지역으로 지정(마카오 위생국, 2.23)</li> <li>*고위험지역 방문객 대상 별도 지정장소에서 검역 강화</li> <li>▶ 한국 2단계 여행경보(불필요한 여행자제) 발령(마카오 여행위기관리국, 2.25)</li> <li>▶ 해외 모든지역 2단계(불필요한 여행자제) 여행경보 발령(마카오 여행위기관리국, 3.19)</li> </ul>
5	일본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류자격 보유자에 한해 일본 재입국 허용('20.9.1)</li> <li>* (PCR)출국전 검사증, (대사관 발급)재입국확인서 지참 조건</li> <li>▶ 중장기 체류 대상 외국인, 일본 신규 입국 허용('20.10.1~)</li> <li>* 출국 전 PCR 검사 음성,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등 조치 확약이 가능한 기업, 단체 대상, 입국자 수 한정 조건</li> <li>▶ 양국간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20.10.8)</li> <li>* 단기출장자용 '비즈니스 트랙' 과 장기체류자용 '레지던스 트랙' 으로 운영, 비즈니스 트랙의 경우 PCR검사 음성확인증 제시 등 조건충족시 14일 격리조치 면제</li> <li>▶ 대한민국 전역 감염증위험정보 레벨3에서 레벨2(불요불급의 방문)로 격하('20.10.30)</li> <li>▶ 영국발 변종 유입 우려로 전세계 대상 신규 외국인 입국 재금지</li> <li>▶ 비즈니스트랙 포함 외국인 신규 입국 전면 금지책 재개('21.1.14~2.7)</li> <li>▶ 비즈니스트랙 포함 외국인 신규 입국 전면 금지책 연장('21.2.8~3.7)</li> <li>▶ 비즈니스트랙 포함 외국인 신규 입국 전면 금지책 재연장(3.8~3.21)</li> </ul>
6	아시아 중동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국 정부 공무원 대상 한국을 포함한 주요 위험국가 공무 여행 금지 발표(태국 내무부, '20.3.1)</li> </ul>
7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해외여행 자제(싱가포르 보건부, '20.3.18)</li> <li>▶ 한국·독일·말레이시아 대상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는 Fast lane 제도 3개월 중단 발표('21.1.30)</li> <li>* 신속통로제도와는 별도로 한국 입국 시 중요사업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li> </ul>
8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18~3.31 이동 제한 명령으로 해외여행 금지(말레이시아 총리실, 20. 3.16)</li> <li>▶ 20.8.31까지 이동 제한 명령 5차 연장(말레이시아 총리실, '20.6.7)</li> <li>▶ 국경봉쇄 지속 실시(싱가포르 국경에서 400명/주 한도 내에서 사전허가에 의한 출퇴근만 허용)</li> <li>▶ 21.2.18일까지 말레이시아 전지역 이동금지령(말레이시아 총리실, 21.2.7)</li> <li>▶ 21.3.4일까지 말레이시아 4개주 전면 이동금지령(말레이시아 총리실, '21.2.22)</li> <li>▶ '21.3.5일부터 KL, 셀랑고르 등 수도권 조건부이동금지령으로 단계 하향, 회복 이동금지령 지역 간 관광객 방문은 허용하되 반드시 여행사 상품을 통해야 함</li> </ul>
9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자제 국가로 한국 지정(베트남 총리, '20.2.21)</li> </ul>	
10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싱가포르, 일본, 한국(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여행 연기·자제 및 방문금지 등 권고(인니 외교부, '20.2.24)</li> <li>▶ 전세계 지역에 대한 비필수적인 해외여행 제한 및 해외여행중인 자국민 조기 귀국 등 권고(인니 외교부, 20.3.17)</li> </ul>	
11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17~4.13 루손섬 전체 봉쇄·격리 조치 시행(필리핀 대통령, 20.3.16)</li> </ul>	

			▶ 해외노동자, 외국인 제외 자국민 해외여행 금지(필리핀 외무부, '20.3.18)
12		인도	▶ 한국, 이탈리아, 이란 여행 자제 권고(인도 보건·가족복지부, '20.2.26) ▶ 대구, 경북 방문 자제 권고(주한인도대사관 '20.2.24)
13		터키	▶ 한국, 이탈리아, 이라크-터키 출도착 항공 전면 중단(터키 보건부, '20.2.29) ▶ 해외여행 자제 권고(터키 보건부, '20.3.11)
14		UAE	▶ 한국 '저위험국가'로 분류, 목적제한 없이 여행 가능('20.6.23) ▶ 별도 발표 시까지 파키스탄, 인도 등 20개국 여행 금지 조치('21.2.4)
15		카자흐스탄	▶ 한국 포함 감염 발생 27개국으로 해외여행 자제 권고(카자흐스탄 보건부, '20.2.6)
16		사우디아라비아	▶ 한국으로의 여행 제한(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 '20.3.9)
17		오만	▶ 자국민 해외 출국 금지(오만 최고위원회, '20.3.18)
18		이란	▶ 외무부 한국 여행 자제 권고(이란 외무부, '20.2.29)
19		쿠웨이트	▶ 2.7일부터 2주간 비시민권자에 대한 입국 중단, 국민 대상 비필수적 해외여행 금지 권고('21.2.7)
20		이스라엘	▶ 한국-이스라엘 항공 운항 중지. 한국여행 자제 권고(이스라엘 보건부, '20.2.23)
21		몽골	▶ 코로나19 발생 국가 여행 자제 경고(환경관광부, '20.1.31) ▶ 한국 코로나19 고위험지역(방문중지)으로 지정(국가비상대책위원회, '20.3.2)
22	미주	미국	▶ 전 세계 모든 국가 대상 4단계(여행금지) 조치 해제(미국 국무부, 8.6) ▶ 한국은 3단계(여행재고)로 조정(미국 국무부, 8.6) ▶ 한국 여행경보 2단계 '주의 강화(Exercise Increased Caution)'로 하향 조정(미 국무부, 11.23)
23		캐나다	▶ 한국 위기단계(1단계: Take normal security precautions) 캐나다 정부 공식 여행권고 3단계(Avoid non-essential travel) * 거의 모든 나라에 3단계 적용
24	구주	독일	▶ 2021.1.1.부터 모든 여행 목적의 한국인 입국 허용 ▶ 모든 불필요한 해외 여행 경고(20.12.16) * 코로나19 위험지역 대상 신호등제 도입을 통해 여행 위험, 경고, 주의 등 표시
25		프랑스	▶ 한국 여행등급 1단계(정상)에서 3단계(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제 권고)로 격상(프랑스 외무부, 2.25)
26		영국	▶ 모든 불필요한 해외여행 금지 권고(영국 외무부, 3.17) ▶ 해외여행중인 영국국민 즉시 귀국 권고(영국 외무부, 3.23) ▶ 여행금지 권고 해제(7.4)
27		러시아	▶ 한국 여행자제 권고(러시아소비자보호감독청, 관광청, 외교부, 2.26) ▶ 한국 관광상품 판매 중단 권고(러시아관광청, 2.27) ▶ 모스크바 제외 항공운항 제한(러시아교통부, 3.1) ▶ 국제항공노선 운항 전면중단(러시아연방항공청, 3.27) ▶ 국제항공노선 일부 운항 재개(8.1) ▶ 방한항공노선(모스크바-인천) 운항 재개(9.27)
28		벨기에	▶ 꼭 필요하지 않은 한국 여행은 하지 말 것을 권고(벨기에 외무부, 3.2)
29	대양주	호주	▶ 한국의 모든 지역에 대해 여행금지(4단계) 경보 발령(호주 외교통상부, 4.1) ▶ 시민권자, 영주권자 대상 예외적 경우 제외 모든 해외 출국금지조치 발효(호주 외교통상부, 3.25)

**참고4**

**한국의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23)**

No	시행일	국가	관리 조치
1	'20. 2.4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베이성 발급여권 입국제한</li> <li>▶ 후베이성 관할 공관 발급 기존사증 효력 잠정중지</li> <li>▶ 14일내 후베이성 방문 모든 외국인 입국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베이성 관련 제한사항 8.10일부 해제</li> </ul> </li> <li>▶ 제주 무사증 일시 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발 외국인에 대한 무사증 전면 중지</li> </ul> </li> <li>▶ 특별입국절차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상태질문서 및 특별검역신고서 작성</li> <li>- 입국장 검역과정에서 발열 검사 시행</li> <li>- 국내 체류 주소와 휴대전화 연락처 확인</li> <li>-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후 2주간 앱을 통해 자신의 상태 의무보고</li> </ul> </li> </ul>
		전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입국 자동심사 이용 중지</li> </ul>
2	2.12	홍콩·마카오	▶ 특별입국절차 시행
3	3.9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 잠정 중지</li> <li>▶ 일본 주재 모든 공관 발급 일본 국민에 대한 기존사증 효력 잠정 정지</li> <li>▶ 신규 비자발급 심사강화</li> <li>▶ 특별입국절차 시행</li> </ul>
4	3.12	이탈리아·이란	▶ 특별입국절차 시행
5	3.15	프랑스·독일·스페인 ·영국·네덜란드	▶ 특별입국절차 시행
6	3.19	전세계	▶ 특별입국절차 전세계 확대 시행
7	3.22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발 입국객 전원 대상 별도 지정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증상자 : 검역소 격리시설</li> <li>* 무증상자 외국인 : 지정된 임시생활시설</li> <li>* 무증상 내국인 : 자가격리, 입국 후 3일 이내 관할보건소에서 검사</li> </ul> </li> </ul>
8	3.27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발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입국객 대상 입국조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증상자 :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li> <li>* 무증상자 : 14일간 자가격리,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 실시</li> </ul> </li> <li>▶ 미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객 대상 입국조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증상자 :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li> <li>* 무증상자 :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li> <li>* 음성판정 시 능동감시 대상으로 지정 및 한국 내 체류 보장</li> </ul> </li> </ul>
9	4.1	전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국가 입국자(내·외국인)는 14일 자가격리</li> <li>*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국익, 공익 목적 예외적 사유 제외)</li> </ul>
10	4.13	아·태 18개국 미주 23개국 유럽 34개국 중동 9개국 아프리카 6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 151곳 중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했거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국가·지역 90곳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 정지</li> <li>▶ 4.5일까지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의 단수·복수사증 효력 잠정 정지. 이미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당시 부여받은 체류 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 가능</li> <li>▶ 단기취업(C-4), 취업·투자 등을 위한 장기사증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li> </ul>
11	4.13	미국	▶ 미국발 입국자 자가격리 후 3일 이내 모두 진단검사 실시
12	7.13	방역강화 대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역강화 대상 4개 국가에서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실시</li> <li>* 해당국가 발 정기항공편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li> </ul>
13	7.20	방역강화 대상국	▶ 기존 방역강화 대상 4개 국가에 7.20일부터 2개 국가 추가

14	7.31	재입국 외국인 관리 필요 대상국	▶ 방역관리상 취약한 유형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심사단계에서 거주지별 형태, 건물주와의 통화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 파악, 입국 심사시 특별검역신고서에 기재한 주소지가 자가격리에 부적합할 경우(관내 고시원, 모텔 등) 시설격리 ▶ 난민 신청자 중 출국 후 재입국 예정인 1000여명 대상 난민심사 진행단계, 체류기간 만료일, 난민 신청사유 등을 전수조사하여 재입국 시 신속하게 심사 결정할 예정
15	7.31	특별 입국대상자	▶ 자가격리 주소 및 연락처 기재 시 자가격리 장소 소유주 또는 관리인의 연락처 기재 의무화
16	8.3	방역강화 대상국 및 러시아 출항 선원	▶ 출항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실시
17	8.10	중국	▶ 후베이성 발급여권 입국제한 해지 ▶ 후베이성 관할 공관 발급 사증제한 해지 ▶ 14일내 후베이성 방문 모든 외국인 입국제한 해지
18	8.17	전세계	▶ 8.17일 0시부터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가 한국정부의 방역조치 위반 시 코로나19 치료비 전액 부담
19	8.24	전세계	▶ 8.24일 0시부터 상대국가의 한국인 대상 코로나19 치료비 지원 정도 및 여부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해외유입 외국인 국적별 치료비 일부 또는 전액 부담 조치 - 126개국 중 58개국이 한국인 환자 대상 일부지원, 66개국이 전액지원 중(12월 기준)
20	9.30~ 10.4	전세계	▶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중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3일 이내 진단검사, 14일간 격리실시 등 특별입국절차와 해외입국자 별도 운송 계속 실시
21	12.23~ 21.1.7	영국, 남아공	▶ 검역강화 : 입국시, 격리해제전 검사, ▶ 영국발 항공편 입국 한시적 중단('12.23~' 21.1.21) ▶ 입국심사 강화 및 발열 기준 기존 37.5도에서 37.3도로 조정
22	'21. 1.4	전세계	▶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공항입국자 1.8일부터, 항만입국자 1.15일부터) ▶ 해외입국자 시설 및 자가격리 관리 강화 및 격리해제 전 검사 실시
23	21.1.4	영국, 남아공	▶ 내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외교·공무·인도적 사유 이외의 신규 비 자 발급 중단, 격리면제서 발급 한시적 중단
24	21.1.12	영국, 남아공	▶ 영국·남아공 입국자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임시생활시설 에서 진단검사 및 음성 확인까지 격리
25	21.1.12	전세계	▶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3일 이내 및 격리해제 전 검사 실시
26	21.1.18	전세계	▶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진단검사 시기를 1일 이내(당초 3일)로 단축 하여 변이 바이러스 감시·관리 강화
27	21.2.8	아프리카 전역	▶ 모든 아프리카 입국자(외국인→내·외국인)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28	21.2.11	전세계	▶ 모든 해외 입국자 PCR 검사 3회 실시 - 입국전(음성확인서) → 입국직후(시설 또는 자가격리 후 1일 이내) → 격리해제 전 ▶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특별관리 및 격리 강화(전수 1일실 격리)
29	21.2.11	변이바이러스 위험국	▶ 변이바이러스 점유율을 고려하여 방역 강화국 지정 및 주기적 조정. 항공편 제한 등 방역 조치 강화. 격리면제제도 원칙적 중단

※ ('20.4.13일 시행) 사증면제 잠정 정지 국가·지역(90곳)

구분	사증면제협정국가	무사증입국 국가·지역
아·태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키리바시, 호주, 솔로몬제도, 투발루, 피지, 홍콩, 대만, 마카오, 브루나이, 사모아, 통가
미주	바하마, 앤티가바부다, 아이티,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과테말라, 그레나다, 도미니카공화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온두라스, 캐나다, 파라과이
유럽	불가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리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중동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튀니지	바레인, 오만,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아프리카	레소토	모리셔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세이셸, 에스와티니

**참고5**

**국가별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3.23 기준]**

지역	국가명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중화권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활용 외교를 위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여 백신 지원 진행 중</li> <li>○ 자국 제약업체 시노팜 백신 국민 접종 중</li> <li>○ 자국 제약업체 시노백 백신 일반승인(2.6)</li> <li>○ 코로나 19 백신 접종 횟수 4,052만회 완료(2.9)</li> </ul>																		
	홍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콩정부 총 2,250만 회 분(홍콩인구 3배수)의 백신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시노백, 미국 화이자,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각 750만 회 분량 백신 구매 계약완료</li> </ul> </li> <li>○ 코로나 백신 관련 원스톱 웹사이트(<a href="https://www.covidvaccine.gov.hk/en/">https://www.covidvaccine.gov.hk/en/</a>) 운영</li> <li>○ 우선접종대상 370만 명 대상 접종시행(2.26-)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염병 방지 관련 의료진 및 직원</li> <li>2) 60세 이상 노인층 (70세 이상 노인동반 보호자 최대 2명 접종가능)</li> <li>3) 노인 및 장애인 요양원 거주자 및 직원</li> <li>4) 필수 공공 서비스 제공자</li> <li>5) 국경간 운송·이동 관련 종사자(운송트럭 운전자, 항공승무원, 선원 등)</li> <li>6) 식음료, 슈퍼마켓, 택배운송업, 대중교통 운송업, 건설업, 관광업 등</li> </ol> </li> <li>○ 만 30세 이상 홍콩거주민으로 백신접종 대상 확대(3.16-)</li> <li>○ 9개 지역 커뮤니티 시설, 민간클리닉, 정부병원 의료시설, 요양병원 등 4개 채널에서 접종시행</li> <li>○ 정부 플랫폼 'iAM Smart+' (<a href="https://www.iamsmart.gov.hk/en/">https://www.iamsmart.gov.hk/en/</a>)에서 온라인 백신접종 예약 가능, 접종 후 디지털 증명서 발급 기능 등</li> <li>○ 3.8(월)부터 우선접종대상 370만 명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5개 그룹 외, 식음료, 슈퍼마켓, 택배운송업, 대중교통 운송업, 건설업, 관광업 등 백신접종 대상 확대</li> </ul> </li> <li>○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보상을 위한 HK\$ 10억 상당의 보상기금 조성</li> </ul>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DC(질병관리센터), COVAX 등을 통해 1,500만 명분을 기 확보한 것으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 안정성, 효과성, 접종시기 등에 신중한 입장으로 이르면 내년 3월 의료진 등 감염 노출 위험이 높은 그룹을 대상으로 460만 명분 우선 접종 개시 예상</li> </ul> </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제스(DNA 백신) : 5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개시</li> <li>- 시오노기제약(유전자 재조합 백신) : 1-2차 임상시험 개시(12월)</li> <li>- 타케다약품공업(유전자 재조합 백신) : 미 노바백스의 제조기술 이전</li> <li>- KM바이오로지스 : 내년 1월 1·2차 임상시험 동시실시, 2023년 실용화 목표</li> <li>- 다이이치산쿄(mRNA 백신) : 내년 3월 임상시험개시 목표</li> </ul> </li> <li>○ 코로나19 백신 확보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화이자 1억 4,400만회분(7,200만명분) / 6월 말까지 1억 회 이상 확보 예정</li> <li>- 미국 모더나 5천만 회분(2,500만명분) 승인 신청 중</li> <li>-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1억 2천만 회분(6,000만명분) 승인 신청 중</li> </ul> </li> <li>○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아미화학(아비간) : 제조판매승인 신청(10.16)에 대해 승인보류 결정( '20.12.21)</li> <li>○ 정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순서 및 계획 발표( '21.2.16)</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접종순위</th> <th>대상자</th> <th>접종(예상)시기</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의료종사자 선행접종</td> <td>희망자 약 4만명</td> <td>'21.2.17~</td> </tr> <tr> <td>2</td> <td>의료종사자 우선접종</td> <td>코로나19 환자와 빈번하게 접하는 의료종사자, 구급대원, 보건소직원 등 470만명</td> <td>'21.3.1~</td> </tr> <tr> <td>3</td> <td>고령자 우선접종</td> <td>65세 이상 3천6백만명</td> <td>'21.4.12~</td> </tr> <tr> <td>4</td> <td>기타</td> <td>기저질환자, 고령자 시설 직원 등을 우선하면서 일반인 포함</td> <td>-</td> </tr> </tbody> </table> </li> <li>○ 화이자 백신, 후생노동성이 승인할 경우 16세 이상 접종으로 검토 중(1.10)</li> <li>○ 일본정부, 백신 접종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특별사이트와 공식 트위터 계정 개설(1.22)</li> <li>○ 백신접종 체제 및 운영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 실시 예정(1.27)</li> <li>○ 의료종사자 대상 선행접종 개시(2.17-)</li> </ul>	접종순위	대상자	접종(예상)시기	1	의료종사자 선행접종	희망자 약 4만명	'21.2.17~	2	의료종사자 우선접종	코로나19 환자와 빈번하게 접하는 의료종사자, 구급대원, 보건소직원 등 470만명	'21.3.1~	3	고령자 우선접종	65세 이상 3천6백만명	'21.4.12~	4	기타	기저질환자, 고령자 시설 직원 등을 우선하면서 일반인 포함	-
접종순위	대상자	접종(예상)시기																		
1	의료종사자 선행접종	희망자 약 4만명	'21.2.17~																	
2	의료종사자 우선접종	코로나19 환자와 빈번하게 접하는 의료종사자, 구급대원, 보건소직원 등 470만명	'21.3.1~																	
3	고령자 우선접종	65세 이상 3천6백만명	'21.4.12~																	
4	기타	기저질환자, 고령자 시설 직원 등을 우선하면서 일반인 포함	-																	

지역	국가명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이중동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부, 옥스퍼드-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백신 생산에 대한 기술을 이전 받아 코로나19 백신 생산 시작. 연간 2억 도스 생산, 5월부터 공급 가능</li> <li>○ 코로나19 백신 2.14일 첫 접종 준비, '머프롬'앱 등록 필수(1.25)</li> <li>* 2월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만 도스 도착, 의료진 우선 접종, 2.12일까지 머프롬 앱을 이용하여 사전 등록 필요</li> <li>○ 2월말 시노백 백신 20만 도스 도입, 향후 순차적으로 타 백신 도착 예정(21.2.15)</li> <li>○ 시노백(20만), 아스트라제네카(11만7천) 백신 첫 출하 물량(총 31만 7천 회분) 태국 도착(21.2.24)</li> <li>○ 정부, 중국과 아세안 거주 화교대상 백신접종센터 설립 협의(21.3.9)</li> <li>○ 식약처, 3월중 존슨앤존슨 백신 승인 예정(21.3.12)</li> <li>○ 태국산업연맹, 정부와 별개로 시노백 백신 10만 회분 주문(21.3.19)</li> </ul>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인-장기거주자는 백신 무료 접종 가능</li> <li>- 1차분은 '20.12월 말부터 접종 예정, 2021년 말까지 모든 사람을 대상 목표, 의료 종사자, 노인 및 취약 계층 우선 접종</li> <li>○ 정부,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li> <li>- 내년 3분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양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민과 장기 거주자에게 무료로 제공될 것</li> <li>○ '21.1.27일부터 70세 이상 고령자 대상 백신 접종 개시</li> <li>○ 3.4일 기준 싱가포르 약 35만 명의 싱가포르인이 첫 번째 백신 접종을 마쳤으며, 이중 80%가 의료인력, 3월 말부터 60세~69세 고령자 대상 접종 실시</li> <li>○ 보건부, 시민권자영주권자 대상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조기 접종 허용 계획(21.3.16)</li> <li>* 특수한 상황 : 학업 및 업무, 중환자 돌봄, 해외진료 필요 등</li> <li>○ 3.17일 기준 인구 100명 당 백신 접종 13.54건으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음</li> </ul>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부, 러시아 중국산 백신 1,830만 도즈 공급 계약 체결(1.26)</li> <li>○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재확인</li> <li>- 2~4월 의료진 등 50만명 1차 접종, 4~8월 고령자 고위험군 등 940만명 2차 접종, 5월~'22년 2월 18세 이상 성인 대상 3차 접종. 전국 600개 접종센터에 백신 보관소 설치 및 접종</li> <li>○ '21.2.26일부터 전국 600여개의 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 시작</li> <li>○ 보건부, 화이자 백신 1차 접종분 도착(21.2.21), 2.24일부터 접종 개시</li> <li>○ 보건부,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개시, 1,500명 접종 완료(21.2.27)</li> </ul>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노젠(Nanogen) 제약사, 자체 개발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백스 임상시험 착수</li> <li>* 임상시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경우 2021년 5월 출시 계획</li> <li>○ '21.2월 말까지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백신 490만 회분 확보 예정</li> <li>○ 베트남 첫 번째 백신(아스트라제네카) 11만 7,600회 분량 2월 24일 도착</li> <li>○ 3.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li> </ul>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네시아 2021년 백신접종 계획</li> <li>- 의료진·군·경·법조인·공공서비스 종사자(21.1~4), 취약계층 일반 국민 등(21.4~22.3)</li> <li>○ 자카르타주, 백신 접종 거부시 벌금 5백만 루피아 부과</li> <li>○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이드라인 및 대상자 발표</li> <li>- 1차 (21.1월-4월) : 의료/보건 종사자 130만명 및 공무원 174만명 대상 접종</li> <li>- 2차 : 18~59세 연령층</li> <li>○ 국내산 Merah Putih 백신. 3월경에 Biofarma를 통해 임상시험 진행 예정</li> <li>○ '21.2.17일부터 5월까지 공공서비스 종사자 및 60세 이상 고령층 9백만명 대상 2차 백신 접종 실시</li> <li>○ 식약청(BPOM), 시노백 긴급사용승인(EUA) 발급(21.2.16)</li> <li>○ 정부, 민간기업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허용 발표, 독자적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6,664개 기업 등록(21.2.26)</li> <li>* 회사는 정부나 국영기업으로부터 백신을 구매하고 각 회사 근로자에게 무료로 제공 가능</li> <li>○ 3.8일 아스트라제네카 약 1백만 도즈 인도네시아 도착</li> <li>○ 전국 10개소에서 고령층과 관광업종사자 위한 드라이브 스루 무료백신접종 시행</li> <li>○ '21.3.16일 기준 : 1차 백신 접종 완료 440만명, 2차 접종까지 완료 170만명</li> <li>○ '21.3.22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AZ) 보급 시작</li> <li>○ 민간주도 백신프로그램을 위해 전국 의료시설 806개 기관에서 준비, 최소 350만명 접수 예상</li> <li>- 민간주도 접종 1차 등록에 9,176개 기업, 2차 등록에 2,372 기업 신청</li> </ul>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방정부-제약회사 간 3차 협약 승인, 7개 제약회사와 계약 예정, 올해 5~7천만명분 접종 예상</li> <li>○ '20년 11월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700만회분, '21년 5월 도착 예정</li> <li>○ 정부, 코백스 등 해외 여러 여러 코로나19 백신 공급업체로부터 1억7천만회 분량 확보 완료, 올해 성인 약 7천만명 접종 가능</li> <li>○ '21.2.28일 필리핀에 첫 코로나 백신 도착 (중국 정부가 기증한 시노백 백신 60만회 분), 3.1일부터 25만 명의 의료진 및 5만 명의 군인 우선 접종 시작</li> <li>○ 코백스 제공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8만7천회 분. 3.4일 필리핀 도착</li> <li>○ 정부, 미국 노바백스 백신 3천만회 공급계약 체결(하반기 공급), 3월~4월 중 시노백 등</li> </ul>



지역	국가명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p>240만회 분의 백신 필리핀 도착 예정</p> <p>○ 정부, 올 연말까지 전국민의 70% 백신접종 완료 계획</p>
	인도	<p>○ 보건 당국, 자국 백신을 포함하여 총 16억회 분의 코로나19 백신 주문, 현재 1억회 분 확보 (1인당 2회분 분량 접종 계획)</p> <p>○ 코로나19 백신접종 가이드라인 발표, 1차 접종 대상자 약 3억 명</p> <p>- 1차 접종대상자에 의료진 1천 명, 최전선 직원 1천 명, 50세 이상 인구 및 50세 미만 동반 질환 보유자 2억 7천여 명 포함</p> <p>- 백신접종 시행을 위한 인력확보와 물류 및 IT 시스템 구축 관련 지침 작성</p> <p>○ '21.1.13일부터 인도 내 백신 접종 시작 예정, 올해 8월까지 3억명 접종 계획</p> <p>○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인도 최초 긴급사용 승인, '21.1.16일부터 백신 접종 시작</p>
	UAE	<p>○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 대상 코로나19 백신 단계별 접종시작('20.12.15)</p> <p>- (1단계) 65세 이상 국민/거주자, 감염에 취약한 인력(의료진 등), 만성 질환자 등</p> <p>- (2단계) 50세 이상 국민/거주자, 보건의료 일반 종사자 등</p> <p>- (3단계) 백신 접종을 원하는 모든 국민/거주자</p> <p>○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긴급 등록 및 국민/거주자 대상 무료 접종 시작('21.12.23)</p> <p>○ 2021년 1분기, 코로나19 백신 전 거주민의 50% 이상 접종 계획</p> <p>○ 러시아 스푸트니크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 승인 및 공식 등록('21.1.21)</p> <p>○ 두바이 보건 당국(DHA),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긴급 등록 및 18~60세 두바이 국민/거주자 대상 무료 접종 시작('21.2.8)</p> <p>○ 3.21일부터 16세 이상 모든 UAE 거주자 무료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능</p> <p>- '20.12월부터 지난 6주간은 취약계층(노인, 기저질환자 등) 및 의료업계 종사자 대상 우선 접종</p> <p>○ UAE 백신 접종량 : 총 7,298,768회/인구 대비 73.1%(3.22일 기준)</p> <p>- UAE 내 접종 가능 백신(3.22일 기준) : 시노팜(UAE 전 지역),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두바이)</p>
	터키	<p>○ 정부,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확보현황, 접종 계획 발표('20.12.14)</p> <p>- 터키 당국은 현재 16개 제약회사가 백신 개발 중이며, 이중 가장 빠른 것은 1개 제약회사가 임상 1상 완료 후 2상 진행 예정('20.12.25)</p> <p>- 터키 국민 2,500만 명 총 2회 접종 가능한 약 5,000만 회분의 백신 확보 완료(시노백)</p> <p>- 12월 25일 첫 접종시작, 2~3주간 집중적으로 백신 접종 예정</p> <p>- 접종 대상 5개 그룹으로 분할하며, 의료종사자, 65세 이상부터 접종 시작</p> <p>- 모든 접종비는 정부 부담으로 무료 배포</p> <p>○ 시노백 백신 긴급사용 승인 완료('21.1.13), 의료계 종사자 등 접종그룹 우선순위에 의거 접종 시작('21.1.14)</p> <p>○ '21.2.23일 기준 전 국민의 약 7.2% 접종 완료</p>
	카자흐스탄	<p>○ 보건부, 미국 자체 개발 화이자 백신 2021년 하반기 공급 예정('21.1.3)</p> <p>○ 보건부, 러시아 자체 개발 Sputnik V 백신 등록('21.2.15), 2월 말 9만 회분 이상의 Sputnik V 백신 공급 예정</p> <p>○ 보건부 장관, 2.1일부터 3주간 의료진 약 2만명이 Sputnik V 백신을 접종받았고, 현재까지 부작용 사례 없음('21.2.22)</p> <p>○ 보건부, 4월 중 카자흐스탄 자체 개발 백신인 QazCovid-In의 3차 임상시험 완료 예정</p> <p>○ 보건부, 3.4일부터 65세 이상 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능</p> <p>○ 3.15일 기준 총 69,095명이 1차 코로나 19 백신 접종 완료</p> <p>○ 자체 개발 QazCOVID-in 백신, 4월말에 출시 가능성 보도('21.3.17)</p>
	이스라엘	<p>○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1위 국가, 백신증명서 발급 계획 발표</p> <p>- 백신접종 시작('20.12.19) 이후 1.24일 기준 현재 인구 100명당 41.8회 백신 투여 완료</p> <p>- 노령층과 고위험군에 속한 그룹 대상 우선 접종 시작, 접종 후순위에 해당하는 그룹도 본인 희망 시 접종 가능, 정상적 학사 일정 운영과 대학입학 시험 일정으로 부모 동의하에 16~18세 그룹도 접종 시작</p> <p>○ 백신 2회차 접종자 대상으로 백신 증명서 'Green Booklet' 발급 계획</p>
	몽골	<p>○ COVAX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 188,940회분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 예정</p> <p>○ 인도에서 지원한 15만 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 울란바토르 시에 도착 및 2.22일부터 감염 노출 위험이 높은 의료진, 경찰 대상으로 접종 시작('21.2.22)</p> <p>○ 중국에서 지원한 30만 회분 시노팜 백신 도착('21.2.23)</p> <p>○ 2.27일 Sputnik-V 백신 10만 회분 몽골 도착, 추가 10만 회분 3월 초 도착 예정('21.2.28)</p> <p>○ 7.1일까지 전국 성인 대상 백신 접종 완료 계획('21.3.5)</p> <p>○ 울란바토르 시, 현재 43개의 백신 접종소 운영 중, 일일 1만5천명~2만명 대상 접종 실시('21.3.9)</p> <p>○ 4월 말까지 5종류의 1.6백만 회분 백신을 공급 받을 예정('21.3.19)</p> <p>○ 3월 21일 기준 총 189,969명 대상으로 접종 완료('21.3.21)</p>
미주	미국	<p>○ 델타항공, 코로나19 백신 글로벌 운송 체계 구축 완료</p> <p>- 애틀랜타, 디트로이트,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애틀 내 위치한 대규모 물류창고 및 냉각시설과 의약품 수송관련 인증을 받은 세계 45곳 공항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p>

지역	국가명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p>전세계 각지에 코로나19 백신을 운송하기 위한 준비 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LM Martinair Cargo, Virgin Atlantic Cargo와 협력</li> </ul> <p>○ FDA, 12.18 모더나 백신 긴급 사용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더나 백신, 3만 명 대상 임상시험에서 2차 접종 시 94.1 예방 효과 기록</li> </ul> <p>○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보고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원인 연구</p> <p>○ 시우스웨스트 항공, 전 직원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은 연방정부 지원, 접종 비용은 직원들의 건강보험 종류에 따라 항공사 부담 예정</li> </ul> <p>○ 바이든 대통령, 코로나 백신 2억 회분 추가 구매 발표(1.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이자, 모더나 백신 각각 1억회 분량 구매 발표.</li> <li>- 이미 확보한 백신 포함 총 3억회 분 보유. 미국 전 국민 접종 가능한 수량이며, 올 가을 초까지 접종 완료 계획</li> </ul> <p>○ 캘리포니아주, 3.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 만성 신장·폐질환 등 기저질환 및 다운증후군 등 장애인 접종 가능(16-64세)</li> </ul> <p>○ 화이자 백신,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항체 보호 효과 3분의 2까지 떨어질 수 있음(2.17)</p> <p>○ 화이자, 임산부 대상으로 백신 안정성 입증 위한 임상시험 실시(2.17)</p> <p>○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파우치소장, 올 7월 말 모든 국민 접종 분량 확보 예상(2.18)</p> <p>○ 이스라엘에서 화이자 백신을 한 차례만 맞아도 효과가 85%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 발표. 3주 후 2차 접종을 할 경우 효과가 95%로 나타남(2.19)</p> <p>○ FDA, 존슨앤드존슨 코로나19 백신, 만장일치로 긴급사용 승인 권고</p> <p>○ 바이든 대통령, 5월 말까지 전국민 백신 접종 완료 계획 발표(3.2)</p> <p>○ <b>미국인 백신 1차 접종률 23.3%(77백만명, 3.18 기준)</b></p> <p>○ <b>5월 말까지 존슨앤드존슨 백신 1억회분 추가 확보. 모더나/화이자 백신 각각 2억회분 확보 예정</b></p> <p>○ 청소년용 코로나 백신 올 가을, 어린이용(5-12세) 내년 1분기 개발 예정</p>
	캐나다	<p>○ 보건부, 세계 두 번째 화이자 백신 캐나다 내 사용 승인(20.1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내 24만9천회 분 도착 예정, 도착 1-2일내 14개 지역서 무료접종 시작</li> <li>- 21년 9월까지 캐나다국민 전국민 접종 완료 계획(유학생 등 외국인 포함)</li> </ul> <p>○ 백신(화이자)접종 개시(20.12.14)</p> <p>○ 보건부, 모더나(Moderna) 백신 승인(20.12.23), 연내 168천회분 도착</p> <p>○ 화이자 백신제조시설 확장계획으로 당분간 캐나다로의 백신 공급 지연 예정</p> <p>○ 연내 2000만 회분 화이자 백신 추가 구매 동의(총 8천만 회분)</p> <p>○ 보건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승인(2.27), 노브백스(4월 이전) 백신 승인 예정</p> <p>○ 백신수급 사태를 계기로 노브백스 백신 캐나다 국내 생산하기로 동사와 MOU체결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빨라도 가을부터 생산 가능할 것으로 전망</li> </ul> <p>○ ('21.3.14 기준) 캐나다 백신접종 3,009,960회분, 1회이상 접종 전 인구의 6.356%</p> <p>○ 보건부,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 이어 4번째. 존슨앤드존슨(인센) 백신 승인(3.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천만 회분 선구매, 2800백만 회분 추가구매 가능하며 2분기 공급 시작 예정</li> </ul> <p>○ <b>캐나다, 6월말까지 16세이상 전 인구 코로나백신접종 완료 계획 발표(3.18)</b></p> <p>○ ('21.3.20 기준) 캐나다 백신접종 8.515%(1회 이상 접종인구), 3,862,685회분 접종</p>
대양주	호주	<p>○ 호주 내 백신접종 진행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월 22일(월)부터 호텔 격리시설 종사자들, 최일선 의료진, 노인 및 장애인 케어시설 거주자 및 직원 대상 백신 접종 개시</li> <li>- <b>3.22일부터 1b 그룹(70세 이상 고령자, 55세 이상 호주원주민, 의료계 종사자 등) 접종 시작</b></li> <li>- <b>전 국민의 약 1%, 1차 접종 완료</b></li> </ul> <p>○ 호주 백신접종 계획 및 운영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 정부는 백신 접종대상 그룹을 1a, 1b, 2a, 2b, 3의 총 5개 단계로 구성하여 점진적으로 접종 확대. 최전선에서 일하는 격리 호텔, 공항, 의료진, 요양원 근로자 1백 4십만 명이 1a에 해당되며 화이자 백신 투여</li> <li>- 10월 내 전 국민 접종 완료 목표</li> <li>- 백신 접종은 무료이며, 정부 권고사항임 (의무 접종 아님)</li> <li>- 병원 및 약국을 통해 접종 예약가능하며, 대부분 운전 면허증만 제시하면 접종 가능</li> <li>- 접종처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인쇄가능형태로 이메일로 발송, 웹/앱 확인 가능</li> <li>- 호주 정부 면역 등록(Australian Immunisation Register) 시스템을 통해 백신 예방 접종을 처방 받은 사람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누적</li> <li>- 백신 투약 시, 성별, 모국어, 태어난 국가 및 호주 원주민 여부를 기록해 커뮤니티 별 백신 접종 기피 집단을 분석하는 데 사용 예정. 정부가 추후 누적된 데이터를 공</li> </ul>

지역	국가명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 발표할지는 미결정.</li> </ul>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최초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접종 시작(12.8/V-D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 접종자(90세 할머니) 시작으로 의료진, 80세 이상 고령자, 요양원 근무자 등 우선 순위 접종자 대상으로 50개 시범병원에서 접종 시작</li> </ul> </li> <li>○ 세계 최초 파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접종 이후 알레르기 반응 보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접종 하루 만에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직원 2명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자, 영국 NHS는 과거 약품, 음식, 백신에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사전 예방차원에서 당분간 백신접종 중단 권고</li> </ul> </li> <li>○ 임신부는 백신 접종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롭다는 증거는 없으나 임신부대상 임상실험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임</li> </ul> </li> <li>○ 최고 의료책임자, 새로운 변종이 백신이나 치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현재 없다고 발표</li> <li>○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두 번째 접종 완료 7일 경과 후 면역력 생성</li> <li>○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백신 세계 최초 승인(12.30) 및 '21.1.4일 접종 시작</li> <li>○ 1.15일부터 일일 수십만명 이상으로 백신접종 확대 계획 발표</li> <li>○ 모더나 백신 사용 승인(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접종자 27,997,976명(1차 접종자 기준, 3.21 기준)</b></li> </ul> </li> <li>○ 모더나 백신 영국발 및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 있는 것으로 발표</li> <li>○ 7월말까지 18세 이상 모든 성인 백신 접종 완료예정(1차 접종 기준)</li> <li>○ <b>영국 성인의 절반 이상, 1차 접종 완료 및 일일 접종자 수 최고치 기록(66만명, 3.19)</b></li> <li>○ <b>4월 중순까지 목표대로 9개 우선순위 접종자 대상자 접종 완료 예정(의료종사자, 50대 이상 등 3,180만 명)</b></li> </ul>
구주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당국 산하 백신위원회, 백신 우선 접종 권고 초안 마련 및 관계 기관에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 번째 그룹 : 80세 이상 고령자, 양로원 혹은 요양원 거주자, 응급실 등 감염 노출 위험이 높은 의료진, 위험 그룹과 접촉이 긴밀한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이 우선 접종 대상</li> <li>* 우선 접종 대상 규모 : 860만 명</li> <li>* 우선 접종 대상 중 65세 미만은 연령에 제한된 백신(예: 아스트라제네카)으로 접종 규정 (제 2조 2항, 3조 2항, 4조 3항)</li> <li>- 두 번째 그룹: 76-80세 고령자, 치매환자 돌봄시설 거주자 및 의료진, 돌봄시설 의료진, 간병인 등 (접종규모 약 6백만 명) 및 암환자, 중증 당뇨 환자, 만성 신장질환 환자 등과 같은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li> <li>- 세 번째 그룹 : 71세-75세 고령자, 망명 및 노숙자 보호소 거주자, 의료 시설, 특히 병원 인프라 유지를 위한 관련 직위 (예 : 클리닉 및 관행의 청소 직원 또는 병원 기술 직원) 및 공중 보건 서비스에 고용 된 직원에 노출 위험이 중간 정도인 직원(접종 규모 약 550만 명)</li> <li>- 네 번째 그룹 : 66세-70세 고령자, 중등도 질병환자 접촉자, 교사 및 교육자, 계절근로자, 육가공 근로자, 택배업 및 유통업자 등, (접종규모 약 690만명)</li> <li>- 다섯 번째 그룹 : 60세-65세 고령자, 소매업, 주 및 연방 정부 주요직원, 중요 인프라 직원(소방대, 군대, 경찰, 대중 교통 또는 폐기물 관리) (접종규모 약 9백만명)</li> </ul> </li> <li>○ 개봉한 백신앰플의 유효기간 만료 전 개별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와 무관하게 유동적으로 접종을 시행하는 것을 허용(제1조 3항)</li> <li>○ 교사 대상 코로나19 백신접종 2.24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3.21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건수 7,517,073건 기록</b></li> </ul> </li> <li>○ 가정의학과 병원에서도 늦어도 4월 초부터 백신 접종 예정</li> <li>○ 슈판 보건장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5세 이상 접종 허용 요청</li> <li>○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3.15일 일시 중단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부는 백신규제기관 파울에를리히연구소(PEI) 권고에 따라 예방 조치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 중지 결정</li> </ul> </li> </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27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시작, 고령층 등 취약집단부터 우선 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월~) 요양시설 거주 고령자, 직원 등 100만 명 대상 우선 제공</li> <li>- (2월~)코로나19 취약 만성질환 환자, 의료진을 중심으로 1,400만 명 대상 제공</li> <li>- (4월~6월) 전 국민 대상 확대</li> <li>* 의무 접종이 아닌 선택사항이며, 프랑스 인구수보다 많은 1억 명 가용 백신 2억 회분 확보(인당 2회 접종)</li> <li>* 무료 제공으로, 사회보장예산 약 1조 9천억 원 책정</li> </ul> </li> <li>○ 모더나 백신 1.11일 프랑스에 입고</li> <li>○ 백신물량 부족으로 2.2일부터 1차 접종 일시 중단, 3월 첫째 주로 연기</li> </ul>

지역	국가명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간병인 대상 우선 접종 시작, 3월 말까지 누적 백신 접종 인원 800만 명 목표</li> <li>○ 3월부터 모더나 백신 하청 생산, 공급 물량 확대 청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은 4월, 큐어백 백신은 5월부터 하청 생산 예정</li> </ul> </li> <li>○ 유럽연합, 모더나 백신 3억 회분 추가 구매 계약</li> <li>○ 코로나19에 취약한 50~64세 국민 대상 백신 접종 캠페인 시작</li> <li>○ 3.20 기준, 613만 명(프랑스인의 10%) 1차 접종 완료, 이 중 절반은 2차 접종까지 완료. 4월 중순까지 천만 명, 5월 중순까지 2천만 명, 올 여름까지 3천만 명(프랑스인의 50%) 접종 목표</li> <li>○ 화이자-바이오엔테크, 3월 말까지 EU에 4백만 회 분 추가 백신 제공 예정</li> <li>○ 3.19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재개. 단, 55세 이상에게만 권고</li> </ul>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백신 : 2종(Sputnik V, EpiVacCorona)</li> <li>- Sputnik V 생산계획국가 : 헝가리, 인도, 한국, 브라질, 중국,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li> </ul> </li> <li>○ 러시아 개발 코로나19 백신(Sputnik V) 접종 개시(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접종대상 : 의료진, 교사, 공공서비스 분야 근로자 / 18-60세</li> <li>- 백신생산량 : 232,000 도즈(~2020.12), 6백만 도즈 / 월(2021.1~)</li> <li>- 기타 : Sputnik V 접종 유효기간 2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결합 접종 실험</li> <li>* 통상적인 백신 개발 절차와 달리 3상에 앞서 공식승인 사전진행</li> </ul> </li> <li>○ 러시아 개발 코로나19 백신(Sputnik V) 접종자 150만명 돌파</li> <li>○ 연해주 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의료종사자·65세 이상 고령자 우선 접종 예정(1.12)</li> <li>○ 모스크바, 1.13일부터 호텔 및 여행사 종사자 대상 백신 접종 시작 예정</li> <li>○ 러시아 백신 '에피박코로나' 60세 이상 고령 대상 3단계 임상시험 완료(접종효과 지속기간 1년) 및 3월부터 대량 생산 시작</li> <li>○ 2.24 기준 코로나 백신 1차 접종 완료자는 34,000여명이며 이 중 2차 접종 완료자는 7천여명</li> <li>○ 푸틴 대통령, 자국의 백신으로만 21년 8월까지 60%의 러시아인 접종 완료를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월 700만회, 2월 1,100만회, 3월 1,500만회 백신 생산 예정이며 8월까지 총 7천만회 접종 예정</li> </ul> </li> <li>○ 러시아 첫 번째 백신 스푸트닉 V 판매 가격 인하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푸트닉 V는 필수 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음. 다만 최근 국내의 수요가 상승함에 따라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으며 러시아 극동지역은 현재 접종이 중단된 상태임</li> </ul> </li> </ul>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로제네카 등 제약사와 백신 계약 체결. 화이자 백신 승인에 따라 90세 이상 시민부터 접종 개시</li> </ul>